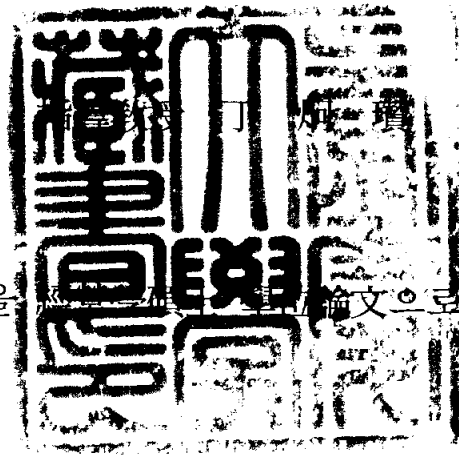


經營學碩士 學位論文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 論文을

提出함

2003年 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經 營 學 科

許 惠 善

許惠善의 經營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26日

主 審 經營學博士 柳 日 盛



委 員 經營學博士 丁 炯 瓚



委 員 經營學博士 李 有 泰



목 차

Abstract	v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문헌연구	4
제 1 절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문헌연구	4
제 2 절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8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0
제 1 절 연구가설	10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관한 가설	10
2.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	10
3. IMF 전·후의 변화에 관한 가설	12
제 2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4
1. 표본의 추출	14
2. 주식소유지분을 계산 방법	14
3. 자료분석 방법	16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17
제 1 절 1995년 30대 대기업 분석결과	17
1. 현대	17
2. 삼성	23
3. 대우	24
제 2 절 2000년 30대 대기업 분석결과	26

1. 현대	26
2. 삼성	28
3. LG	30
제 3 절 IMF 전·후의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	32
1. 30대 대기업의 분석결과	32
2. IMF 전·후 30대 대기업에 계속 포함된 대기업의 분석결과	33
3. 최종 소유지분 기준의 선정	35
4. IMF 전·후 기간의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분석결과	36
제 4절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39
제 5 장 요약 및 결론	45
참 고 문 헌	47
<부록 1> 1995년 30대 대기업 소속회사 현황	50
<부록 2> 2000년 30대 대기업 소속회사 현황	59
<부록 3> 1995년 4위-30위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67
<부록 4> 2000년 4위-30위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91

표 목 차

< 표 1 >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	32
< 표 2 > 30대 대기업에 계속 포함된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	34
< 표 3 > 최종 소유지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변화	35
< 표 4 > 카이스퀘어 테스트 분석결과	37
< 표 5 >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39
< 표 6 > 차우 테스트 분석결과	43

그 립 목 차

<그림 1> 1위 현대	17
<그림 2> 2위 삼성	23
<그림 3> 3위 대우	24
<그림 4> 1위 현대	26
<그림 5> 2위 삼성	28
<그림 6> 3위 LG	30

The Ownership-Control Structure of the 30 Largest Conglomerates and Its Determinants

Hye-Sun Heo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and the determinants of ownership-control structure(OCS) of the 30 largest Korean conglomerates. Changes i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OCS during the IMF crisis in Korea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The year of 1995 and 2000 are chosen as the pre- and post-IMF crisis period respectively, and the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se two yearly data are compared so a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types and determinants of OCS. The age, size, and the managerial risk of the firms are hypothesized as the critical factors that determine the OCS. Types of OCS are classified as family-, corporate-, financial institution-, and government-control by the guideline of the 10 % ultimate control.

Data are gathered from the several sources. The data as to the affiliates of the 30 largest conglomerates pu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composition weight data by stockholder of the sample firms are gained from the Annual

Corporation Reports published by Maeil Business Newspaper and the DART Syst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both in 1995 and 2000 the family-control type of OSC dominates (130 firms are family-controlled and 8 are corporate-controlled in 1995, and 201 family-controlled and 42 corporate-controlled in 2000,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changes) in dominant OCS types exist between pre- and post-IMF periods. The age and the managerial risk of the firm turn out to be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OCS in 1995, and the age in 2000. The Chow test also verifies that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OCS have changed.

This study has some drawbacks: first, the unlisted firms are ruled out in 1995 data due to the unavaila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used in the test model can not be expected enough to explain the phenomena. To enhance the explaining power of the model other factors and larger samples are needed. Other empirical settings such as different sample periods are also needed.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하에서 생겨난 대기업은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는데 전인차 역할을 해왔다. 대기업들은 여러 면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으며 성장하였으나, IMF 체제 하에 들어서자 대기업의 경영부실이 IMF의 주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문제가 대두되었다.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첫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전에는 소유주 또는 대주주가 경영의 주체였으므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기고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주식을 통한 자본조달로 주식시장이 발달하게 되었다. 주식이 광범위하게 분산 소유됨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영자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못한 채 대주주이면서 경영자인 소유경영자에 의해서 거의 독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차입에 의한 경영을 하여 높아진 부채비율로 인한 과도한 금융비용의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부실을 초래하였고, 비관련 다각화로 경영성과가 높은 부문에서 경영성과가 낮은 부문으로 자원이 이동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을 누가 소유하느냐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노력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날로 지

연해지는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갖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약 27개국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code of best practices)을 제정하여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Cadbury 보고서와 Hamble 보고서 캐나다의 Dey위원회 보고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각 국의 기업지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OECD도 각 국이 제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비교적 일치되는 부분들을 모아 '기업지배구조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1999년 5월에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9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였다.¹⁾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선진화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이 어떠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갖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IMF 전·후기간으로 구분하여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변화와 결정요인의 변화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최운연, 이정진(2001),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의 한국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집문당, 서울.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30대 대기업의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대주주 지분을 기준으로 소속회사의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 소속회사들이 어떠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관련 문헌들의 검토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변수를 찾아내고 이 변수들이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였다.

소속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분류한 이후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카이스퀘어 테스트, 차우 테스트(Chow test)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방법과 구성을 제시하고, 제 2장에서는 소유-지배구조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자료의 수집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제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연구 내용 및 실험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문헌연구

제 1 절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문헌연구

공병호(1995)의 연구에서는 1990년을 기준으로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오너지배형, 모기업지배형, 복합지배형, 두단계지배형, 상호소유형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주식소유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가 발행한 재벌분석보고서를 이용하였다. 30대 대기업 중 오너지배형에 속하는 그룹은 한진, 롯데, 미원, 모기업지배형은 금호, 대림, 기아, 복합지배형에는 현대, 선경, 럭키금성, 두단계지배형에는 쌍용, 진로, 상호소유형에는 삼성, 대우, 효성 그룹이 속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수, 창업자 경영인가 아니면 2세 혹은 3세 경영인가, 공개율 변화의 3가지 지표를 가지고 소유유형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벌의 소유유형이 오너지배형이라는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으나 소유패턴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은 말진할 수 없었다.

전우석호(1996)의 연구에서는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5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개 대기업집단 중 비상장 계열회사는 제외하였고, 금융기관은 상장기업의 경우 포함시켰다. 지분율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에서 제공하는 KIS-FAS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대우그룹의 경우 대우중공업과 (주)대우를 모기업으로 하고, (주)대우와 대우전자가 대우중공업의 40.2%, 대우자동차의 89.6%, 대우증권의 11%를 소유하여 이들 기업의 대주주 역할을 한다. 그룹 총수는 대주주로서의 지분과 대우재단을 통한 간접지분으로 일부 계열기업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을 그룹의 축으로 하여 그룹의 총수는 6개 핵심 계열기업의 대주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계열구조를 취한다. LG그룹의 경우, LG화학을 중심으로 다수의 계열기업이 수직·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LG화학의

상당 지분은 비상장 기업인 호남정유가 보유하고 그룹 총수는 호남정유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계열기업을 모두 지배한다. 한화 그룹의 경우, 그룹의 총수는 모든 핵심계열기업인 한화, 한화에너지, 한화 종합화학을 직접 소유하며, 계열기업을 통한 간접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하여 6개의 전문업종 계열회사를 소유하는 방식을 취하며 그룹의 총수는 이들 두 지주회사를 개인소유와 아산재단을 통한 간접소유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웅기(1997)의 연구에서는 10대 재벌의 소유구조 연결의 본질을 파악하고, 주식소유를 통한 가족지배의 패턴을 구분하며, 지배유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시험하였다. 현대의 경우 45개 계열사 중 27개사를 직접 소유하고, 이 중 12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고, 3개 계열사의 두 번째 대주주이다. 정주영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 이는 계열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계열사의 일부가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며, 계열사간 상호보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찾아볼 수 없었다. 삼성의 경우 55개 자회사 중 6개 자회사의 대주주이며, 삼성생명, 삼성전자, 제일모직, 삼성 코퍼레이션, 제일제당, 신세계백화점은 핵심사업이며, 49개 자회사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핵심사업에 의해 소유된다. 이건희 일가는 삼성그룹을 최소의 자본으로 소유·지배하는데 이는 계열사간 간접적 주식소유로 가능하다. LG그룹은 구 일가와 허 일가가 그룹의 28개 자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28개 외에 10개에서는 최대주주이고 7개에서는 두 번째 대주주이다. LG그룹의 주식은 많은 가족구성원에 의해 널리 소유되며, 하나의 가족단위가 그룹을 지배할 수 없으며, 두 가족 사이의 협력이 그룹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 대우그룹은 김우중은 대우정밀을 포함한 5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비영리조직인 대우 Foundation이 2개의 핵심사업인 대우 Corporation과 대우전자의 지배주주이다. 핵심사업은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비영리조직과 계열사간의 강한 소유 네트워크를 통해 완전 지배가 가능하다. 선경그룹은 주요 재벌 중 소유정도가 높은 편이며, 32개 자회

사 중 15개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그 중 10개사의 최대 주주이다. 2단계의 수직적 소유구조를 통하여 자회사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그룹 전체의 지배가 가능하게 한다. 쌍용그룹은 모기업인 쌍용시멘트가 10개 자회사와 이해관계를 갖고 이 중 9개사의 최대주주이다. 쌍용그룹은 전통적인 가족지배로 가족이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해관계만을 갖는다. 한진그룹은 조 일가가 대부분의 전략적 사업을 직접 소유·지배하며, 24개 자회사 중 17개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이중 11개사의 대주주이고, 7개사는 일가와 이해관계가 없다. 기아는 오너 가족의 이해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개별주주에 의한 지배도 없다. 기아자동차가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자회사간의 주식소유도 거의 없다. 한화그룹은 가족이 모기업을 직접 지배하고 모기업과 핵심사업간의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자회사를 간접 지배한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 일가가 그룹 사업의 대부분을 소유하며, 가족의 실질 비율은 일본에 기반을 둔 그룹계열사에 의해 소유·지배된다.

임용기(1998)의 연구에서는 95년도 말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직접소유, 간접소유 방식의 가족지배, 가족소유지분의 크기, 사업집중도 측면에서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제1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높은 사업집중도로 한진, 롯데그룹이 속하고, 제2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중간 사업집중도로 한보, 동아, 뉴코아, 벽산그룹이 속하고, 제3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낮은 사업집중도이고, 제4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족지분율-높은 사업집중도로 삼미그룹이 속한다. 제5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족지분율-중간 사업집중도, 제6유형은 직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족지분율-낮은 사업집중도, 제7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높은 사업집중도로 한라, 동국, 한일그룹이 속한다. 제8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중간 사업집중도로 진로그룹이 속하고, 제9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높은 가족지분율-낮은 사업집중도로 현대, 선경, 동부그룹이 속하며, 제10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

족지분율-높은 사업집중도 : 대림, 동양, 극동그룹이 속하고, 제11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족지분율-중간 사업집중도로 대우, 금호, 효성, 고합, 해태그룹이 속하며, 마지막으로 제12유형은 간접소유형 가족지배-낮은 가족지분율-낮은 사업집중도 : 삼성, LG, 쌍용, 한화, 두산, 코오롱, 한솔그룹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laessens, Djankov, Lang(2000)의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9개 국가(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의 2,980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소유의 정의는 cash-flow로 하고, 지배의 정의는 voting right로 하며, 소유와 지배의 분리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가족지배형이 가장 잘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지배형 중에서도 홍콩, 일본, 필리핀, 태국은 소기업,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은 대기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기업에서 잘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배형의 경우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의 소기업에서만 소유-지배의 분리가 발생하였고, 상장재무기구에 의한 분리는 일본의 소기업, 중기업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갖는다는 기업의 설립연수와 기업규모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립연수의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이완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기업규모는 한국과 일본의 대기업과 중기업에서 널리 분산 소유된다.

제 2 절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문헌연구

임웅기(1989)의 연구에서는 주식소유의 분산정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영자 지배형태의 기업수는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연수가 소유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주의 이사직 참여율을 변수로 사용하였고, 경영위험(매출액 영업이익률의 변동성)도 포함시켰다. 사업위험변수로 시장변수(시장모형의 표준오차)와 회계변수(매출액순이익률의 변동성)를 이용하였다. 정부규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유집중률을 보인다고 보았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대주주 1인에 의한 주식소유집중률은 낮아진다고 보고 시가총액을 사용하였다. 1986년 말 기준 총 355개의 상장회사 중 277개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사직 참여율을 제외한 SIZE, RISK, YEAR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SIZE는 (-), RISK와 YEAR은 (+)의 관계를 보였다.

정균화, 국찬표(1996)의 연구는 1992(1994)년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688(701)개 업체 중 296(415)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주주지분, 기관투자자의 지분 및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은 한국증권거래소의 공시자료와 주주명부를 이용하고, 재벌기업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재무자료는 한국기업평가(주)와 상장회사협의회 DB에서 입수하였다. 종속변수에는 소유구조(대주주 1인 지분), 자본구조(장기부채비율과 부채비율로 장부가치를 기준), 배당정책(배당성향)이 있고, 독립변수에는 업력(상장 후 경과연수), 규모(총자산의 장부가치의 대수치), 자산의 담보가치(고정자산/총자산), 독특성(연구개발비중=연구개발비/매출액, 광고선전비중=광고선전비/매출액), 영업위험(총자산영업이익률의 표준편차), 수익성(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기관투자자지분(기관투자자 보유주식수/총발행주식수), 우리사주조합지분 등이다. 연구방법은 LISREL을 사용하였고, 연구의 결과 기관투자자의 지분 및 우리사주조합지분 만이 (-)의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고, 기업특성 변수나 자본구조 배당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대주주 지분에 영향을 주는지

는 불확실하게 나타났다.

신연수, 임병진(199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소유집중도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각 연도별, 기간별, 산업별, 30대 대기업집단과 비기업집단별로 각각 산출하여 최근 4년 간의 한국 상장기업의 소유집중도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살펴보고, 대주주 1인의 주식소유집중을 결정하는 설명변수를 탐색한다. 연구대상기간은 1993.1.1~1996.12.31까지 4년이고, 표본 기업수는 270개이다. 종속변수는 대주주 1인 지분율(소유집중도)이며, 설명변수는 기업규모(ln자본금), 체계적위험(ln베타), 고정비율(고정자산/총자산), 재무레버리지(총부채/총자산), 상장연한, 30대 기업집단 여부이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 결과 소유집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변수에는 기업규모, 고정비율, 설립연한, 상장연한, 30대 기업집단 더미변수이고 이들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율과 설립연한은 정(+)의 관계를 기업규모, 상장연한, 30대 기업집단 더미변수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러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갖게 하는 결정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제 1 절 연구가설

1.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관한 가설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분류하여 30대 대기업을 소속회사들이 어떠한 소유-지배 구조를 갖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첫째, 가족지배형으로 동일가족 혹은 두 가족이 직접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형태를 말하고, 둘째, 회사지배형은 계열회사 또는 다른 회사가 지배하는 형태, 셋째, 금융기관지배형은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형태, 마지막으로 국가가 지배하는 국가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의 30대 대기업을 소속회사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가족지배형의 소유 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설은

가설 1. 30대 대기업을 가족지배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질 것이다.

2.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

30대 대기업을 소속회사들이 일정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갖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기업규모, 설립연수와 경영위험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중립적 효과와 위험회피적 효과로 지분을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Demsetz-Lehn (1985), Crutchely-Hansen (1989), Jensen-Solberg-Zorn (1992), Bathala-Moon-Rao (1994)의 연구에서 기업규모와 경영자지분은 부(-)의 관계를 나타냈고, 임웅기(1989), 홍현표(1993)의 연구에서는 정(+)의 관계, 김석용(1991), 김진우(1997), 정균화(1998)의 연구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²⁾ 따라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가족지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설은

가설 2. 기업규모는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업이 처음 생겨날 때에는 대부분이 가족자본에서 출발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더 많은 투자가 기회가 생겨나면 외부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외부 자본에는 은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도 있지만 대량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기업들이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소유의 분산이 생긴다. 따라서 기업이 설립연수가 오래될수록 주식 소유의 분산이 활발하여 가족지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설은

가설 3. 기업의 설립연수는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박순식, 서석완, “소유구조의 결정요인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개선방안”, 경영경제, 1998, pp. 133-151

Demsetz-Lehn(1985)은 경영위험이 증대될수록 경영자에 대한 감시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대주주는 지분을 높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Fama-Jensen(1983)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경영자의 위험회피로 인하여 경영자지분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Eckbo-Verma(1994)는 기업 특유의 위험이 증가하면 일정지분 유지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므로 대주주가 지분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Bathala -Moon-Rao(1994)도 경영위험이 커질수록 대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그 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되어 사업위험과 대주주지분을 간에는 부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3) 국내 연구에서는 임웅기(1989)의 연구에서 경영위험이 증가할수록 대주주의 지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따라서 경영위험이 커질수록 가족지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가설은

가설 4. 기업의 경영위험은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IMF 전·후의 변화에 관한 가설

30대 대기업의 소속회사들이 갖는 소유-지배구조의 유형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IMF를 전·후로 하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경우 IMF 전에는 가족지배형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IMF 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정책으로 가족지배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에 변화가 있다면 결정요인도 어떠한 쪽으로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 3) 한동식,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1997,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19
- 4) 박순식, 서식완, “소유구조의 결정요인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개선방안”, 경영경제, 1998, pp. 133-151

따라서 가설은

가설 5.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은 IMF 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요인은 IMF 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표본의 추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기간은 IMF 전 기간을 1995년, IMF 후 기간을 2000년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은 1995년과 2000년의 3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0대 대기업을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관한 자료는 연구대상기간의 12월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30대 대기업과 소속회사 현황을 이용하였다. 주식소유지분율 자료는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회사연감을 기초로 하였고, 그 외 회사연감에서 지분율을 파악할 수 없는 기업들의 주식소유지분율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였다.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기업규모, 설립연수, 경영위험을 선정하였다. 이 변수들에 대한 자료는 기업규모의 대용변수로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을 사용하였고, 설립연수는 해당 연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한 것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회사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연구대상기간의 10년전 기간, 즉 1985년부터 1995년까지와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10년간의 영업이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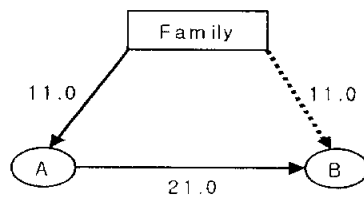
2. 주식소유지분율 계산 방법

기존 문헌들은 소유지분율 관계를 단순히 1단계만 살펴보았다.

Claessens, Djankov, Lang(2000)의 연구에서는 소유의 정의를 cash-flow rights로 정의하고, 지배의 정의를 voting rights로 하였다. cash-flow rights는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을 100.0%라고 봤을 때 몇 %의 소유력을 갖는가를 나타낸다. voting rights는 1주 1표권을 기초로 하여 투표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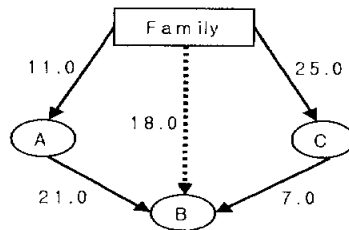
100.0%라고 봤을 때 몇 %를 갖느냐에 따라 기업을 지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Claessens, Djankov, Lang(2000)의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분을 계산 방식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Family가 A기업의 주식 11.0%를 소유하고, A기업이 B기업의 주식 21.0% 소유한다면 Family가 B기업에 대해 11.0%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Voting right - weakest point = 0.11 = 11.0%

Cash-flow right = $0.11 \times 0.21 = 0.0231 = 2.31\%$



Family가 A기업의 주식 11.0%를 소유하고, A기업은 B기업의 주식 21.0% 소유하고 Family가 C기업의 주식 25.0%를 소유하고, C기업은 B기업의 주식 7.0% 소유한다면 Family가 B기업을 18.0%에 해당하는 지배력을 갖고, B기업의 Cash-flow right의 4.06%를 소유한다고 보았다.

Voting right = weakest point = 0.11 + 0.07 = 18.0%

Cash-flow right = $(0.11 \times 0.21) + (0.25 \times 0.07) = 4.06\%$

3. 자료분석 방법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은 계열기업의 지분율을 파악한 후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10%로 하여 어떠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속하는지 보았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변수로는 기업규모와 설립연수, 경영위험을 선정하여 어떠한 것이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IMF를 전·후로 하여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Test를 사용하였고, IMF를 전·후로 하여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IMF를 전·후의 Logistic Regression의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인 Chow Test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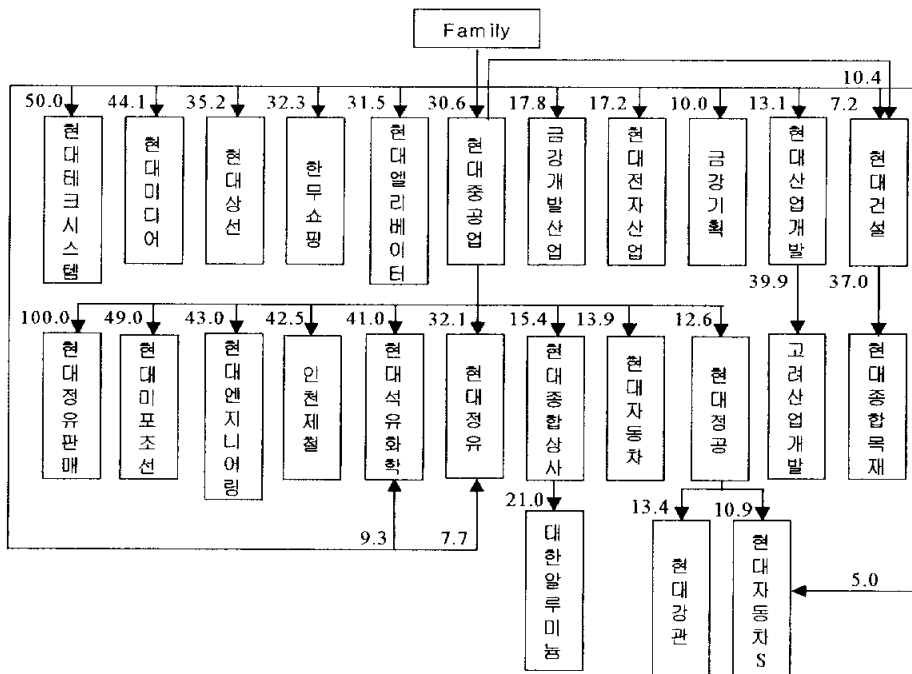
제 4 장 실증분석 및 결과

제 1 절 1995년 30대 대기업 분석결과

1995년 현재 30대 대기업에 속한 소속회사는 총 623개이고, 이 중 금융·보험회사 7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68개사를 제외한 18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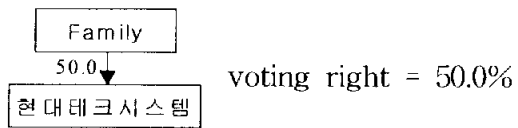
기존 문헌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분석한 것은 1995년 현대그룹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각 계열기업들에 대해 정주영 일가가 갖는 지분을 계산하였고, 나머지 그룹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1.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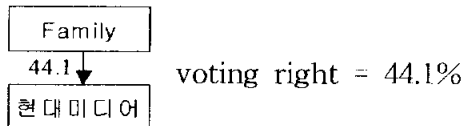


<그림 1> 1위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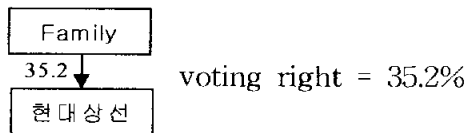
1) 현대테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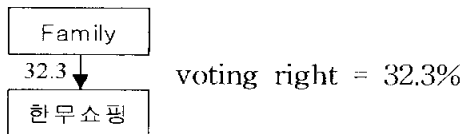
2) 현대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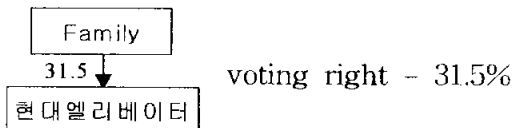
3) 현대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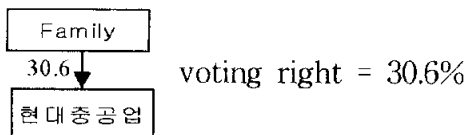
4) 한무쇼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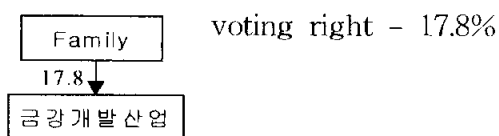
5)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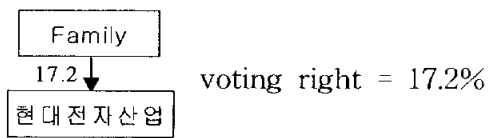
6)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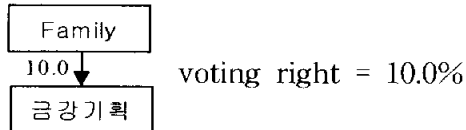
7) 금강개발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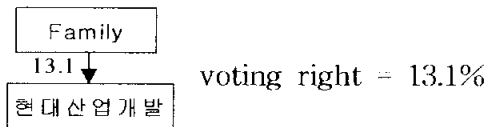
8) 현대전자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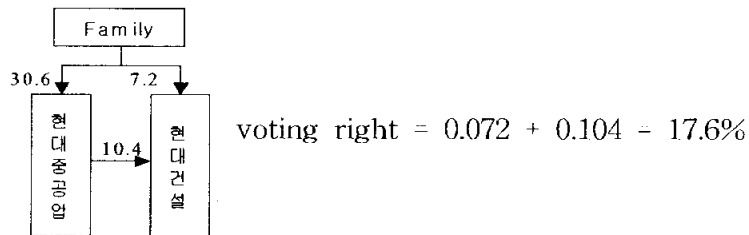
9) 금강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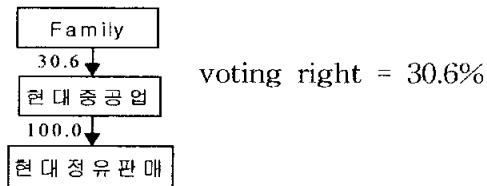
10) 현대산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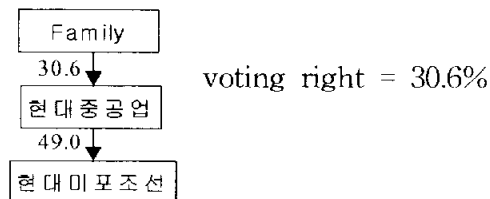
11) 현대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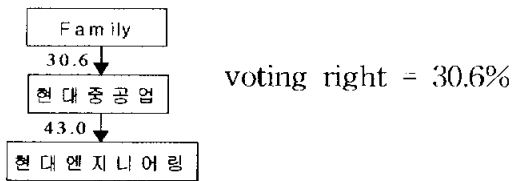
12) 현대정유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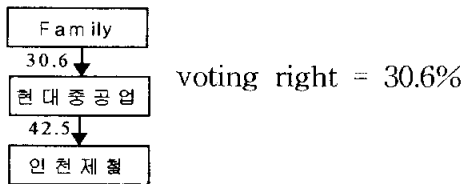
13)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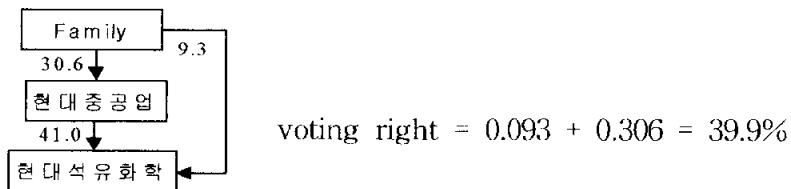
14) 현대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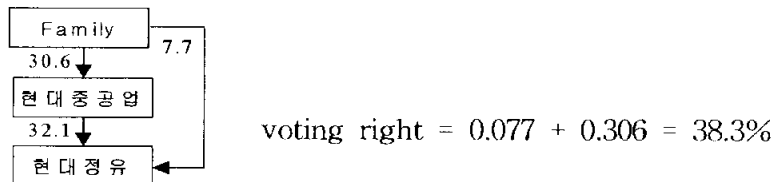
15) 인천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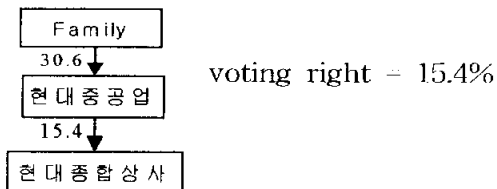
16) 현대석유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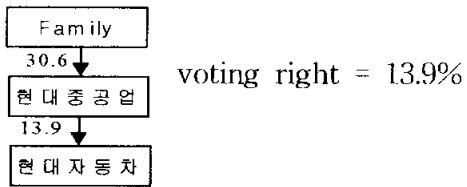
17) 현대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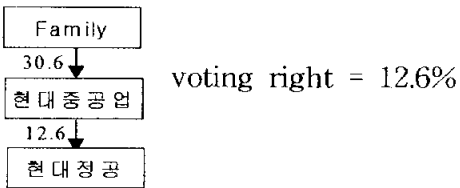
18) 현대종합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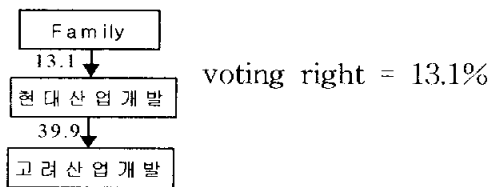
19)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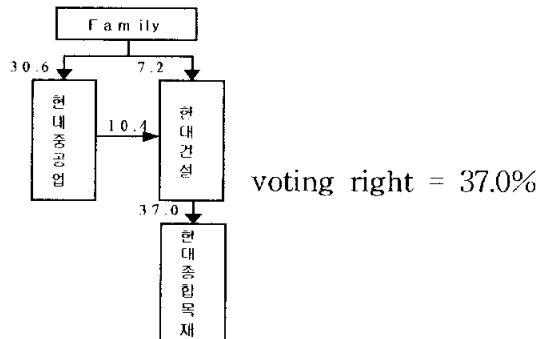
10) 현대정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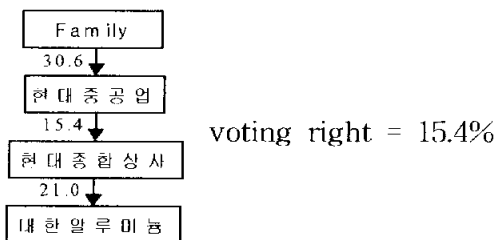
21) 고려산업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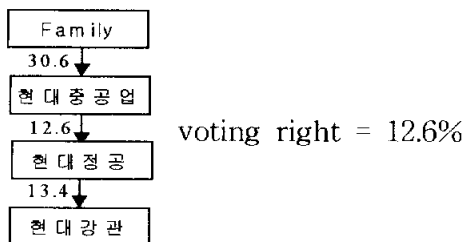
22) 현대종합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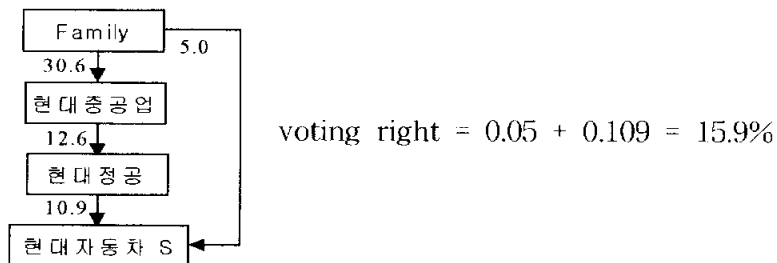
23) 대한알루미늄



24) 현대강관



25)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그룹의 경우 48개의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6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7개사를 제외한 2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지분율 계산 방식에 따라 95년 30대 대기업 소속회사 중 1위 기업인 현대기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5개 기업 중 정주영 일가가 직접 지분율 소유한 것은 14개사이며, 이 중 10개사의 최대주주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유판매, 현대미포조선, 현대엔지니어링, 인천제철,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 현대중합상사, 현대자동차, 현대정공의 최대주주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는 정주영 일가로 그 지분이 30.6%이다. 이 때, 이 기업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대상으로 최종 소유지분의 기준을 10%로 적용할 경우, 분석 대상인 25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

graph TD
    Family[Family] -- 26.7 --> ShinSungWoo[신세계백화점]
    Family -- 24.5 --> SamsungSungmyung[삼성생명]
    Family -- 20.2 --> JeilMokji[제일모직]
    Family -- 14.5 --> JeilHapsung[제일합성]
    Family -- 12.6 --> SamsungMulsan[삼성물산]
    Family -- 13.0 --> JeilChedang[제일채당]
    Family -- 9.6 --> SamsungElectronics[삼성전자]

    SamsungElectronics -- 2.3 --> JeilChedang

    SamsungElectronics -- 7.9 --> SamsungConstruction[삼성건설]
    SamsungElectronics -- 12.2 --> HotelShinra[호텔신라]
    SamsungElectronics -- 7.7 --> SamsungJeonwon[삼성전관]
    SamsungElectronics -- 13.5 --> SamsungPrecisionChemical[삼성정밀화학]
    SamsungElectronics -- 21.8 --> SamsungHeavyIndustry[삼성중공업]
    SamsungElectronics -- 19.2 --> SamsungElectric[삼성전기]
    SamsungElectronics -- 9.1 --> SamhyangIndustrial[삼향공업]

    SamsungMulsan -- 8.4 --> ShinSungWoo
    SamsungMulsan -- 6.7 --> SamsungSungmyung
    SamsungMulsan -- 6.5 --> SamsungHeavyIndustry
    SamsungMulsan -- 7.8 --> SamhyangIndustri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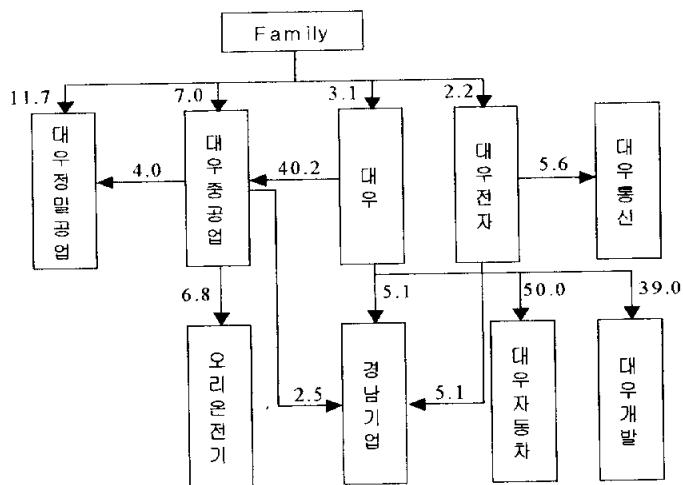
- 23 -

삼성의 경우 55개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5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6개사를 제외한 1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견회 일가는 14개사 중에서 7개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7개사 신세계백화점, 삼성생명, 제일모직, 제일합섬, 삼성물산, 제일제당,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다. 나머지 7개사 중 삼성건설과 호텔신라 삼성전관은 삼성생명이 최대주주이고, 삼성중공업과 삼성전기, 삼성항공산업은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인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최대주주가 일가이므로 이들 역시 가족지배형에 속한다. 이 때 삼성건설, 호텔신라, 삼성전관,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항공산업,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8.1%, 17.9%, 11.5%, 38.2%, 25.7%, 16.7%, 32.5%이다.

최종 소유지분의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분석 대상인 14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3. 대우



<그림 3> 3위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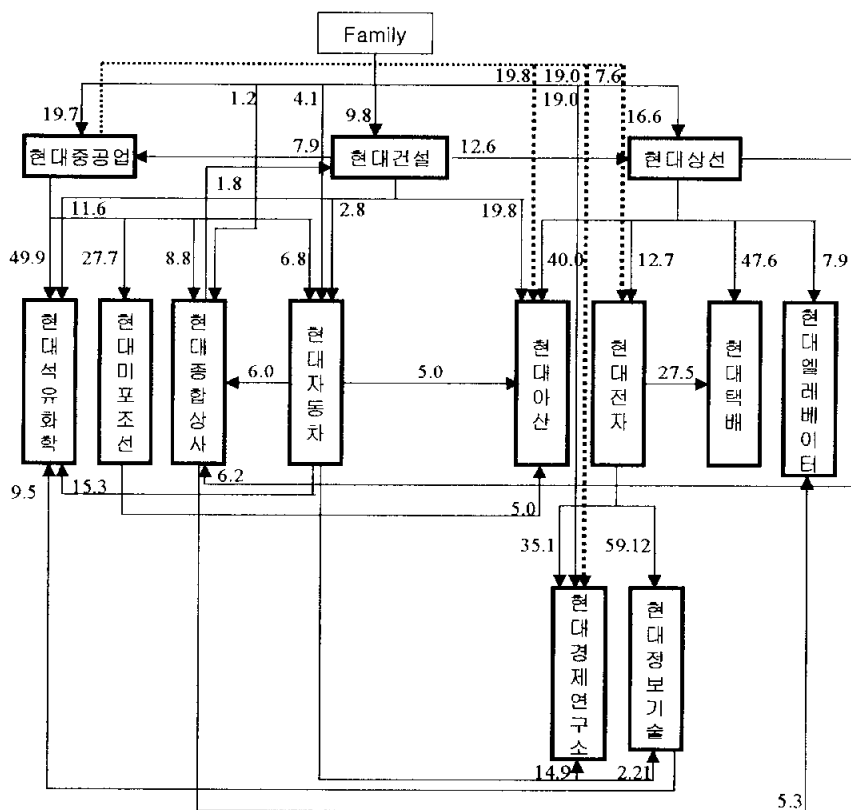
대우의 경우 22개의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1개사를 제외한 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우중 일가가 최종 소유하는 회사는 대우정밀공업, 대우중공업으로 나타났고, 대우자동차와 대우개발은 (주)대우가 최종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는 대우정밀공업에 대해서는 15.7%의 지분을 갖고, 대우중공업에 대해서는 10.1%의 지분을 갖는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대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중 2개사는 가족지배형, 2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000년 현재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한 소속회사는 총 540개이고, 이 중 금융·보험회사 7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56개사를 제외한 31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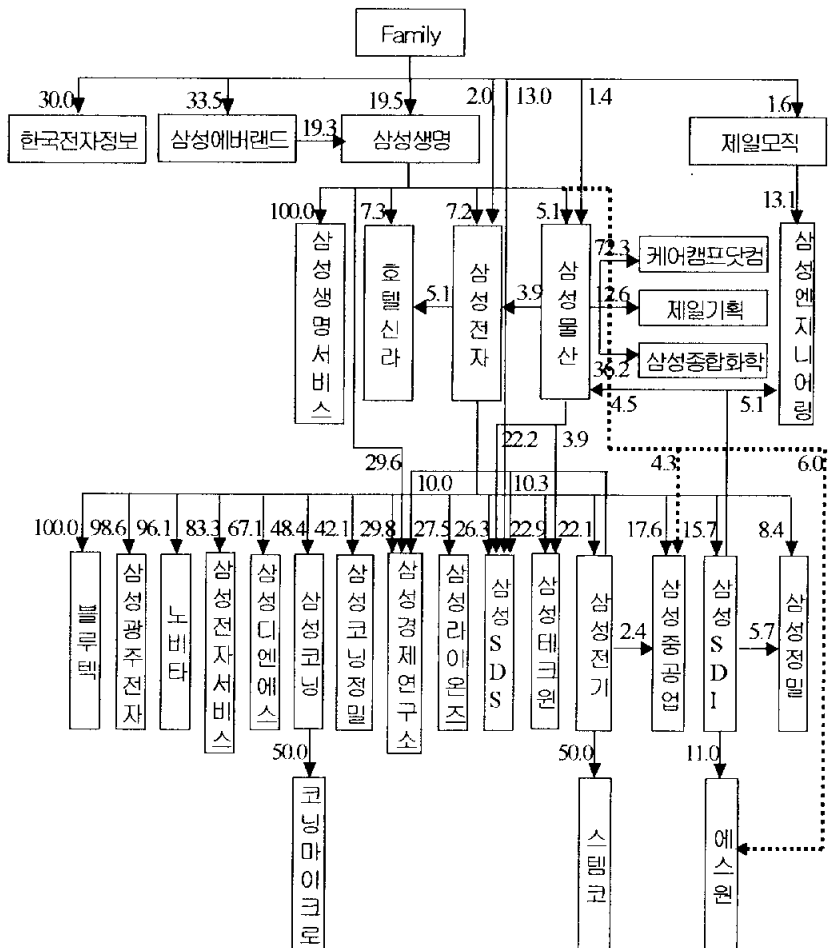
<그림 4> 1위 현대

현대의 경우 25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8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몽헌 일가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 현대경제연구소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이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석유화학,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소유하고, 현대건설은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석유화학, 현대자동차, 현대아산의 지분을 소유한다. 현대상선은 현대아산, 현대전자, 현대택배,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종합상사의 지분을 소유한다. 현대경제연구소와 현대정보기술의 최대주주는 현대전자이지만 일가가 현대상선을 통해 현대전자를 소유하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일가가 분석 대상기업들에 대해 갖는 지분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27.6%,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26.4%,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11.6%이다. 또한, 현대중공업을 통한 현대석유화학, 현대미포조선, 현대종합상사, 현대자동차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59.7%, 27.7%, 16.0%, 13.7%이다. 현대상선을 통한 현대아산, 현대전자, 현대택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은 각각 46.2%, 20.3%, 43.8%, 13.2%이다. 현대전자와 현대상선을 통한 현대경제연구소와 현대정보기술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35.1%, 59.12%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현대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 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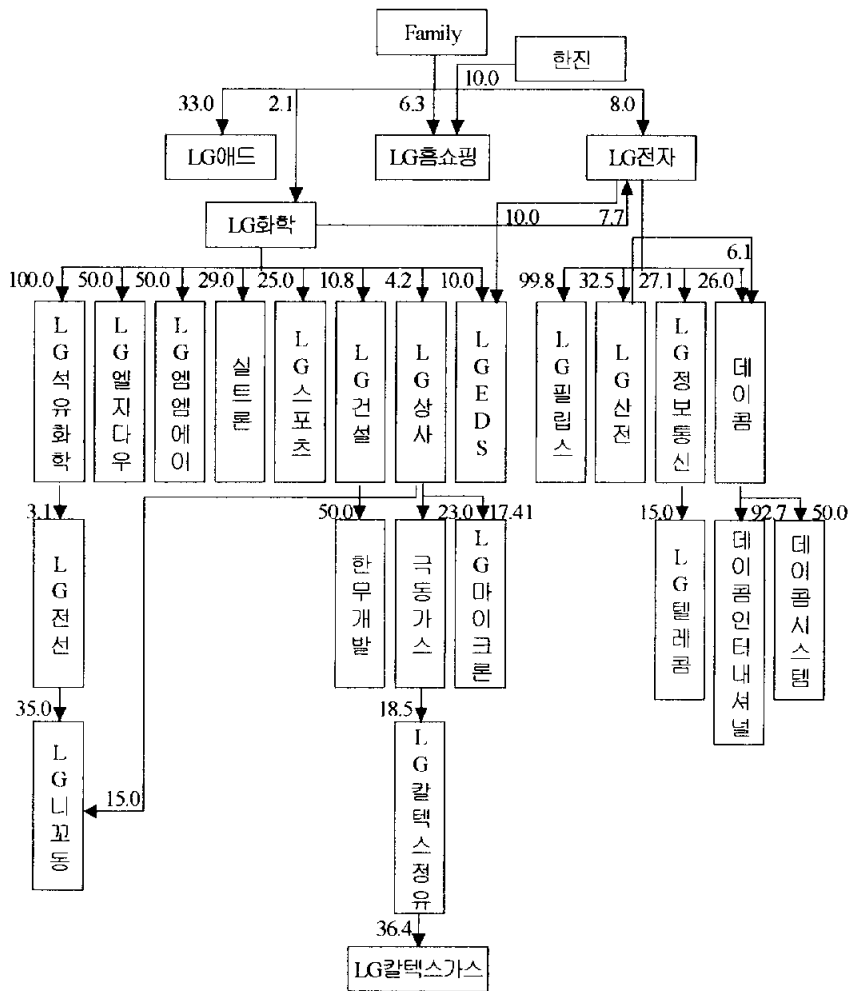
<그림 5> 2위 삼성

삼성의 경우 6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9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25개사를 제외한 2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견회 일가는 한국전자정보,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한국전자정보,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기업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으나, 일가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을 통해서 13.1% 소유하므로 대부분의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38.8%,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해서는 100.0%,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12.4%,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6.5%의 지배력을 갖는다. 케이캠프닷컴, 제일기획, 삼성종합화학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이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삼성물산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지배형이 아닌 삼성물산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15개 계열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블루텍 100.0%, 삼성광주전자 98.6%, 노비타 96.1%, 삼성전자서비스 83.3%, 삼성디엔에스 67.1%, 삼성코닝 48.4%, 삼성코닝정밀 42.1%, 삼성경제연구소 49.3%, 삼성라이온즈 27.5%, 삼성SDS 48.5%, 삼성테크윈 26.8%, 삼성전기 22.1%, 삼성중공업 21.9%, 삼성SDI 15.7%, 삼성정밀 14.1%이다. 그 외에도 일가는 코닝마이크로 50.0%, 스탬코 50.0%, 에스원 11.0%의 지배력을 갖는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삼성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9개사 중 23개사는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고, 4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3. LG



<그림 6> 3위 LG

LG의 경우 4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5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1개사를 제외한 2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구분부 일가는 LG애드, LG화학, LG홈쇼핑, LG전자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다. LG의 계열기업들은 대부분 LG화학과 LG전자가 최대주주이지만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각각 2.1%와 10.1%로 LG화학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넘지 못해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LG석유화학, LG다우, LG엠엠에이, 실트론, LG스포츠, LG건설, LGEDS는 LG화학이 최대주주이고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이므로 이들은 회사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LG필립스, LG산전, LG정보통신은 일가의 지배를 받고, 이 때 지분은 각각 99.8%, 32.5%, 27.1%, 32.1%이다. 또한 LG텔레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15.0%, 데이콤인터내셔널과 데이콤 시스템에 대한 지분은 각각 32.1%이다. LG니코동제련의 최종 소유자는 LG전선이고, 한무개발은 LG건설, 극동가스는 LG상사, LG마이크론은 LGEDS, LG칼텍스정유는 극동가스, LG칼텍스가스는 LG칼텍스정유가 최종소유자이다. LG의 분석대상 기업 중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 기업은 엘지애드, 데이콤, 데이콤인터내셔널, 데이콤시스템, 엘지전자, LG필립스, LG산전, LG정보통신, LG텔레콤의 9개사이다. LG홈쇼핑, LG화학, LG상사, LG전선은 최종 소유기준인 1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없어 분산 소유 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LG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6개사 중 9개사는 가족지배형, 13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제 3 절 IMF 전 · 후의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1. 30대 대기업의 분석결과

1995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623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68개사를 제외한 18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00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540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56개사를 제외한 31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1 >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

	1995	2000
총기업수	623	540
금융·보험회사	- 73	- 72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	- 368	- 156
분석대상 기업수	182	312
가족지배형	150 (82.4%)	248 (79.5%)
회사회지배형	18 (9.9%)	49 (15.7%)
금융기관지배형	4 (2.2%)	5 (1.6%)
분산소유형	10 (5.5%)	10 (3.2%)

- 1) 1995년, 2000년 12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30대 대기업 소속회사를 대상.
- 2) 총기업수(623개) - 금융·보험회사(73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368개) = 182개
총기업수(540개) - 금융·보험회사(72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156개) = 312개
- 3)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가족지배형, 회사회지배형, 금융기관지배형, 국가지배형으로 분류하였으나, 국가지배형은 없음.

1995년의 경우 분석대상 기업 182개사 중 150개사는 가족지배형, 18개사는 회사회지배형, 4개사는 금융기관지배형, 10개사는 지배대주주가 없이 분산소유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2000년의 경우 분석대상 기업 312개사 중

248개사는 가족지배형, 49개사는 회사지배형, 5개사는 금융기관지배형, 10개사는 분산소유 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분석대상 기업수가 2000년의 경우 1995년보다 약 1.7배가 많으므로 비율로 살펴보았다. 1995년의 경우 가족지배형은 82.4%, 회사지배형은 9.9%, 금융기관지배형은 2.2%, 분산소유형은 5.5%이고, 2000년의 경우 가족지배형은 79.5%, 회사지배형은 15.7%, 금융기관지배형은 1.6%, 분산소유형은 3.2%이다. 금융기관지배형의 경우 차이가 거의 없고, 가족지배형과 분산소유형의 경우 약 2.0% 정도 감소하였다.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것은 회사지배형으로 약 6.0%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의 영향으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던 기업의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2. IMF 전·후 30대 대기업에 계속 포함된 대기업의 분석결과

<표 1>은 연구대상기간의 30대 대기업에 소속된 회사를 모두 포함한 것이고, 이 분석은 1995년과 2000년 양 기간에 공통으로 소속된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IMF 전기간과 후기간에 모두 포함된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5년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하고 2000년 30대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양 연도에 모두 포함된 그룹은 현대, 삼성, LG, 선경(SK), 쌍용, 한진, 한화, 롯데, 금호, 두산, 대림, 동국제강, 효성, 동양, 코오롱, 고합, 진로, 동부의 18개 그룹이다.

1995년 18개 그룹의 총 계열기업 수는 461개사이고 이 중 금융·보험회사 5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268개사를 제외한 13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18개 그룹의 총 계열기업 수는 446개사이고 이 중 금융·보험회사 6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24개사를 제외한 25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2 > 30대 대기업에 계속 포함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

	1995	2000
계열기업 수	461	446
금융·보험회사	- 54	- 64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	- 268	- 124
분석대상 기업수	139	258
가족지배형	119 (85.6%)	211 (81.8%)
회사지배형	9 (6.5%)	35 (13.6%)
금융기관지배형	4 (2.9%)	5 (1.9%)
분산소유형	7 (5.0%)	7 (2.7%)

1) 1995년, 2000년 양 기간에 모두 30대 대기업에 속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분석.

2) 총기업수(461개) - 금융·보험회사(54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268개) = 139개
 총기업수(446개) - 금융·보험회사(64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124개) = 258개

분석 결과 1995년의 경우 분석대상기업 139개사 중 119개사(85.6%)는 가족지배형, 9개사(6.5%)는 회사지배형, 4개사(2.9%)는 금융기관지배형으로 분류되고 7개사(5.0%)는 분산소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00년의 경우 분석대상기업 258개사 211개사(81.8%)는 가족지배형, 35개사(13.6%)는 회사지배형, 5개사(1.9%)는 금융기관지배형, 7개사(2.7%)는 분산소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분석대상기업수가 1995년보다 2000년이 많긴 하지만 비율로 살펴보면, 가족지배형은 약 4.0% 정도 감소하고, 회사지배형의 경우 7.0%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 또한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의 영향으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던 기업의 주식소유가 분산되어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3. 최종 소유지분 기준의 선정

Claessens, Djankov, Lang(2000)의 연구에서는 최종 소유지분의 기준을 10%와 2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0%와 20%의 기준을 많이 사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10%로 선정하였다.

아래의 표는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5%, 10%, 20%로 달리 적용하였을 때, 30대 대기업에 속한 계열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대상기업은 1995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623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68개사를 제외한 18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00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540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56개사를 제외한 31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3 > 최종 소유지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변화

	1995			2000		
	5%	10%	20%	5%	10%	20%
가족지배형	160	150	81	262	248	164
회사지배형	16	18	25	37	49	86
금융기관지배형	3	4	.	5	5	5
분산소유형	3	10	76	8	10	57
계	182	182	182	312	312	312

1) 총기업수(623개) - 금융·보험회사(73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368개) = 182개

총기업수(540개) - 금융·보험회사(72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156개) = 312개

2)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5%, 10%, 20%로 구분하여 분석.

1995년의 경우 최종소유지분 기준을 5%, 10%, 20%로 하면 가족지배형은 각각 160개, 150개, 81개이고, 회사지배형은 16개, 18개, 25개이다. 금융

기관지배형은 5%의 경우 3개, 10%의 경우 4개, 20%일 경우에는 없고, 분산소유형의 경우 5%는 3개, 10%는 10개, 20%의 경우 76개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 최종소유지분 기준을 5%, 10%, 20%로 하였을 때 가족지배형은 262개, 248개, 164개이고, 회사지배형은 37개, 49개, 86개이다. 금융기관지배형의 경우 5%, 10%, 20%일 때 모두 5개이고, 분산소유형의 경우 5%는 8개 10%는 10개 20%는 57개이다. 최종 소유지분의 지분을 5% 또는 10%로 하면 각 유형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1995년과 2000년 모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로 하면 5% 또는 10%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각 유형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가족지배형의 경우 절반 정도 감소하고, 분산소유형의 경우 6~7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을 가족이 직접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 소유지분의 지분을 10%로 선정하였다.

4. IMF 전·후 기간의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분석결과

<표 1>은 연구대상기간의 30대 대기업에 소속된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지분을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기업을 포함한 것이고, 다음의 표는 1995년과 2000년 30대 대기업의 소속회사 중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인 Logistic Regression에 포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금융기관 지배형과 분산소유형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어 제외하였고 둘째, 경영위험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비상장회사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년의 경우에는 182개사에서 44개사를 제외한 13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00년의 경우에는 312개사에서 68개사를 제외한 24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95년 30대 대기업에 속한 623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68개사를 제외한 182개사에서 금융기관지배형과 분산소유형으로 분류된 14개사를 제외하고 경영위험의 자료수집이 이

려운 30개사를 제외한 13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540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56개사를 제외한 312개사에서 금융기관지배형과 분산소유형으로 분류된 15개사와 경영위험의 자료수집이 어려운 54개사를 제외한 24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표 4 > 카이스퀘어 테스트 분석결과

	가족지배형	회사지배형	합
1995년 개수	130	8	138
백분율(%)	94.20	5.80	100.0
2000년 개수	201	42	243
백분율(%)	82.72	17.28	100.0
통계량	자유도	값	확률값
카이제곱	1	10.1862	0.0014
우도비카이제곱	1	11.3814	0.0007
Mantel-Haenszel 카이제곱		10.1595	
파이계수	1	0.1635	0.0014
분할계수		0.1614	
크래너의 V		0.1635	

- 1) 총기업수(623개) - 금융보험회사(73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4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398개) = 138개
 총기업수(540개) - 금융보험회사(72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5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210개) = 243개
- 2) 가족지배형과 회사지배형을 대상으로 분석.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은 χ^2 검정통계량이 10.1862이며,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014로 유의수준 5%보다 매우 작으므로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은 IMF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의함을 볼 수 있다. 또한 Cochran-Mantel-Haenszel 검정통계량은 $T^*=10.1595$ 이고, 검정

통계량의 p-값이 0.0014로 유의수준 0.05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130개사(94.20%)는 가족지배형, 8개사(5.80%)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고, 2000년의 경우 201개사(82.72%)는 가족지배형, 42개사(17.28%)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소유-지배구조 유형은 가족지배형의 경우 2000년에 비해 11.48% 감소하였고, 회사지배형의 경우 11.48% 증가하였다. 이는 <표 1>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IMF로 인한 정부의 구조조정의 노력의 영향으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줄어들고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4절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다음의 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변수 중 기업규모와 설립연수, 경영위험 중 어떠한 요인이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Logistic Regression을 한 결과이다.

1995년 30대 대기업에 속한 623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98개사를 제외한 13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2000년의 경우 30대 대기업에 속한 540개사 중 금융·보험회사 7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225개사를 제외한 24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995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ChiSq
year	1	0.0632	0.0176	12.9687	0.0003
asset	1	-4.62E-7	6.602E-7	0.4892	0.4843
risk	1	0.000099	0.000057	3.0134	0.0826
2000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Chi-Square	Pr>ChiSq
year	1	0.0540	0.00878	37.7966	<.0001
asset	1	-1.47E-8	1.677E-7	0.0077	0.9303
risk	1	2.078E-6	5.447E-6	0.1456	0.7028

1) 총기업수(623개) - 금융보험회사(73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4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398개) = 138개

총기업수(540개) - 금융보험회사(72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5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210개) = 243개

2) 설립연수 : 현재 연도 - 창업연도

기업규모 :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경영위험 : 1985~1995년, 1990~2000년 10년의 영업이익의 표준편차

Logistic Regression의 종속변수는 가족지배형과 회사지배형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이고 독립변수로는 기업의 설립연수, 기업규모, 경영위험을 선정하였다. 기업규모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을 대용변수로 사용하였고, 경영위험의 경우 β 를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회사도 포함된 것을 고려하여 10년간의 영업이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모형의 유의정도를 나타내는 아카이케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값 슈바르츠 기준(Schwartz Criterion: SC)값을 보면 1995년과 2000년 모두 설명변수가 없는 모형(Without Covariate)보다 설명변수가 있는 모형(With Covariate)의 값이 작아졌고, $-2 \ln L$ 값도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값의 변화에 대한 1995년은 $\chi^2=119.3274$, 2000년은 $\chi^2=80.0039$ 로 매우 의미가 있다.

1995년의 경우 가족지배형은 130개사이고, 회사지배형은 8개사로 나타났고, 2000년의 경우 가족지배형은 201개사, 회사지배형은 42개사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유의성 정도를 우도비검정을 하면 1995년의 경우,

$$A = -2 \ln L_0 + 2 \ln L = 191.309 - 71.981 = 119.3274$$

2000년의 경우,

$$A = -2 \ln L_0 + 2 \ln L = 336.87 - 256.866 = 80.0039$$

우도비검정통계량의 p-값이 0.0001수준으로 유의수준 $\alpha=0.05$ 보다 매우 작게 나타나므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세 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스코어 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정도를 나타내는데 이 값도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Score = (\beta_w - \beta_o)' [Var(w) - Var(o)]^{-1} (\beta_w - \beta_o)'$$

1995년의 경우, 세 변수 중에서 설립연수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고, 경영위험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때 기업의 설립연수

와 경영위험은 모두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연수와 경영위험이 증가할수록 가족지배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2000년의 경우, 세 변수 중에서 설립연수만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고 역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립연수가 증가할수록 가족지배형의 소유-지배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경영위험의 경우 1995년에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으나, 2000년에는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설립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연수의 경우 임웅기(1989)의 연구에서는 설립연수와 대주주 1인의 지분과는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가 대주주 1인의 지분이 아니라 가족지배형이나 회사지배형이나의 질적변수인 것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립연수가 오래될수록 오히려 가족지배형이 되어야 생존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규모의 경우 유의하지 않지만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rutchely-Hansen(1989), Jensen-Solberg-Zorn(1992), Bathala-Moon-Rao(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의 김석용(1991), 김건우(1997), 정균화(199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⁵⁾ 이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중립적 효과와 위험회피적 효과로 자본을 적게 보유하려고 하므로 가족지배형이 아닌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위험의 경우 (+)의 관계를 갖는데 이는 Jensen-Solberg-Zorn(1992), Demsetz-Lehn(1985), 임웅기(198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Demsetz-Lehn(1985)은 경영위험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경영진의 능력에 따른 결과인지 또는 경영책임자들로서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에이전시문제가 심각해 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영위험이 높을수록 소유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욱 커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유자가 경영

5) 박순식, 서식완, “소유구조의 결정요인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개선방안”, 경영경제, 1998, pp. 133-151

권의 확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⁶⁾

최대 우도추정법에 의해 추정된 1995년의 로지스틱 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hat{\beta} = \frac{\exp(0.0632year - 4.62E - 7asset + 0.000099risk)}{1 + \exp(0.0632year - 4.62E - 7asset + 0.000099risk)}$$

추정된 계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hat{\beta}_1 = 0.0632$ 이므로 승산은 $odd = \exp(0.0632) = 1.065$ 이므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에서 기업의 설립연수가 증가할 때 회사지배형이 될 확률에 대한 가족지배형이 될 확률이 약 6.5%만큼 증가하게 된다.

최대 우도추정법에 의해 추정된 2000년의 로지스틱 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hat{\beta} = \frac{\exp(0.054year - 1.47E - 8asset + 2.078E - 6risk)}{1 + \exp(0.054year - 1.47E - 8asset + 2.078E - 6risk)}$$

추정된 계수의 의미를 살펴보면, $\hat{\beta}_1 = 0.054$ 이므로 승산은 $odd = \exp(0.054) = 1.0555$ 이므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에서 기업의 설립연수가 증가할 때 회사지배형이 될 확률에 대한 가족지배형이 될 확률이 약 5.5%만큼 증가하게 된다. 1995년도에는 증가 확률이 6.5%이었으나, 2000년에는 1% 감소된 5.5%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IMF를 전·후로 하여 소유-지배구조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한 Chow Test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6) 임웅기,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한국재부학회, 1989, pp. 1-27.

< 표 6 > 차우 테스트 분석결과

SSE	43.3748676	DFE	377
MSE	0.11505	Root MSE	0.33919
SBC	277.120149	AIC	261.348951
Regress R-square	0.0015	Total R-Square	0.0015
Durbin-Watson	0.8309		

Test	BreakPoint	Num DF	Den DF	F Value	Pr > F
Chow	138	4	373	2.95	0.0201
Chow	139	4	373	3.02	0.0178
Chow	140	4	373	3.09	0.0161

Variable	DF	Estimate	Standard Error	t Value	Pr > t
Intercept	1	0.8715	0.0354	24.62	<.0001
year	1	-0.000349	0.001326	-0.26	0.7926
asset	1	4.951E-9	1.3923E-8	0.36	0.7223
risk	1	2.0217E-8	3.1999E-7	0.06	0.9497

1) 총기업수(623개) - 금융보험회사(73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4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398개) = 138개

총기업수(540개) - 금융보험회사(72개) - 금융기관소유형·분산소유형(15개) - 자료수집이 어려운 기업(210개) = 243개

2) 1~138까지는 1995년 자료, 139~381까지는 2000년 자료임.

차우테스트 결과 추정된 회귀식은,

$$\ln\left(\frac{P_i}{1-P_i}\right) = + 0.8715 - 0.000349 \text{ year} + 0.00000000495 \text{ lasset} \\ + 0.000000020217 \text{ risk}$$

이다.

1995년과 2000년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설립연수, 기업규모, 경영위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otal R-Square 값이 0.15%로 세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1995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결정하는데 유의한 변수는 설립연수와 경영위험이었고, 2000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설립연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경우 설립연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고 경영위험은 10%유의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2000년의 경우 설립연수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우테스트 결과 1995년과 2000년의 로지스틱 회귀식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의 의미는 IMF를 전·후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수, 이원흠, 이한득(2000)의 선행연구에서는 IMF라는 하나의 요인이 대기업의 투자 및 재무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나 그 외의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는 IMF를 전·후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변화가 있고,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결정요인도 IMF를 전·후로 하여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IMF 이후에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박상수·이원흠·이한득, “대기업집단의 재무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IMF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한 투자 및 자금조달 행태 비교,” 한국증권학회, 2000, pp. 339-385.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소속회사들이 어떠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갖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유형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를 찾는 데 있다. 또한 IMF를 전·후로 해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가족지배형, 회사지배형, 금융기관지배형, 국가지배형으로 분류하고,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10%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소유-지배구조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를 설립연수, 기업규모, 경영위험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 연구방법론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카이스퀘어 테스트, 차우테스트를 병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IMF 전기간을 1995년, IMF 후기간을 2000년으로 선정하여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30대 대기업 소속회사로 하였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식소유지분율을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발간하는 회사연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최종 소유지분 기준을 10%로 선정하여 어떤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갖는지를 파악하고, IMF 전·후로 변화가 있는가를 카이스퀘어 테스트로 분석하였다. 소유-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립연수와 기업규모, 경영위험을 선정하여 기업규모는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 경영위험은 10년간의 영업이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1995년과 2000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IMF 전·후로 변화가 있는가를 차우테스트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이스퀘어 테스트 결과, 30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경우 1995년은 가족지배형이 130개사, 회사지배형이 8개사로 나타났고, 2000년은 가족지배형이 201개사, 회사지배형이 42개사로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나서 IMF 전·후로 소유-지배구조 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

로는 1995년의 경우 설립연수와 경영위험, 2000년의 경우 설립연수로 나타났다. 차우테스트의 결과 세 변수 모두 유의하지 않지만 IMF 전·후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래에 언급하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유지분율의 확인 방법 달리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에 공헌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의 경우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지분율과 기타의 자료들을 구하기가 쉬웠으나, 1995년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의 자료수집이 어려워 많은 수의 비상장기업들을 제외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둘째, 소유-지배구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설립연수와 기업규모, 경영위험만을 선정하여 변수선정에 편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도 포함시키고 표본기업 수도 더 증가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한계점의 극복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공병호,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1995, pp. 307-330.
- 김석용, “기업 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학연구, 제 20권, 1991.
- 김영조, “소유구조 및 경영체제가 조직구조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1996, pp. 1-39.
-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 통계, 개념, 분석,” 한국경제학회, 2000, pp. 57-93.
- 김태진, “한국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권영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경서·백재승, “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는 비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와 얼마나 다른가? : 한국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자본구조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제14권), 2001, pp. 89-130.
- 박내희,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경영논총, 2000, pp. 99-114.
- 박종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박종원, “한국 대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소고,” 산경논집 제15집, 2001, pp. 20-28.
- 박상수·이원흠·이한득, “대기업집단의 재무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IMF 외환위기 시점을 전후한 투자 및 자금조달 행태 비교,” 한국증권학회, 2000, pp. 339-385.
- 박순식·서석완, “소유구조 결정요인과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개선방안,” 경영경제, 1998, pp. 133-151.

- 선우석호, “기업집단의 구조개편과 전망,”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연구모노그래프, 1996, pp. 245-288.
- 신연수·임병진, “기업 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1999, pp. 143-161.
- 이순국, “한국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웅기,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결정요인,” 한국재무학회, 1989, pp. 1-27.
- 임웅기, “Ownership Structure and Family Control in Korean Conglomerates : with Cases of the 10 Largest Chaebols,” 한국재무학회, 1997, pp. 1-42.
- 임웅기, “IMF체제하에서의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연세경영연구, 1998, pp. 43-72.
- 장휘용·박종갑, “경영자의 내부지분율과 기업의 재무구조 및 성장정책,” 재무관리연구 (제 16권), 1999, pp. 61-82.
- 전인우,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다각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 :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경제학연구 (제45권), 1997, pp. 269-292.
- 정균화·국찬표,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재무연구, 1996, pp. 249-285.
- 조동근, “IMF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정책제언,” 국제비교한국학회, 1999, pp. 195-241.
- 진태홍, “재벌의 지배구조와 상호지급보증,” 재무관리연구 (제17권), 2000, pp. 1-12.
- 한동석,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허화, “우리나라 재벌의 주식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상대논집, 1989, pp. 1-18.
- 황동조,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Bathala, C.T, K.P. Moon and R.P. Rao, "Managerial Ownership, Dept Policy, and the Impact of Institutional Holding: An Agency Perspective," *Financial Management*, Autumn, 1994, pp. 38-50.
- Claessens.S., S. Djankov, and L.H.P. Lang,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East Asi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00, pp. 81-112.
- Crutchley, C.E. and R.S. Hansen, "A Test of Agency Theory of Managerial Ownership, Corporate Leverage, and Corporate Dividend," *Financial Management*, Winter, 1989, pp. 36-46.
- Cubbin, J. & Lccch, D., "The Effect of Shareholding Dispersion on the Degree of Control in British Companies : Theory and Measurement," *The Economic Journal*, 1983, pp. 351-369.
- Demsetz, H. and K. Lehn,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85, pp. 1155-1177.
- Easterbroke, F., "Two Agency- Cost Explanations of Dividends," *American Economic Review*, 1980, pp. 650-659.
- Jensen, G.R., D.P. solberg and T.S. Zorn,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Inside Ownership, Debt and Dividend Policy," *Journal of Financial and Quantitative Analysis*, 1992, pp. 247-263.

<부록 1> 1995년 30대 대기업 소속회사 현황

1. 현대(48개)

현대건설(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정공(주), 현대상선(주),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인천제철(주), 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강관(주), 금강개발산업(주), 현대종합복재상사(주), 고려산업개발(주), (주)현대비포조선, 현대엘리베이터(주), 대한알루미늄공업(주), 현대엔지니어링(주), 선일상선(주), 현대알루미늄공업(주), (주)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케피코, 현대존브라운엔지니어링(주), 한국알라스카개발(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중기산업(주), 현대정보기술(주), (주)현대테크시스템, (주)현대문화신문, 현대자원개발(주), 한소해운(주), 현대미디어시스템(주), 현대정유(주), 세일석유(주), 한무쇼펩(주), 동해해운(주), 금강기획(주), 현대물류(주), 서울프러덕션(주), 영진석유(주), 현대기술개발(주), 현대야크항공(주)

현대오토파이낸스(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현대종합금융(주), 현대증권(주), (주)강원은행, 현대투자자문(주)

2. 삼성(55개)

삼성물산(주), 제일제당(주), 제일모직(주), 제일합섬(주), 삼성전자(주), 삼성전관(주), 삼성코닝(주), 삼성전기(주), 중앙개발(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중공업(주), 삼성건설(주), 삼성항공산업(주), (주)호텔신라, (주)신세계백화점, (주)중앙일보사,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시계(주), (주)제일기획, (주)연포레저개발, (주)삼성라이온즈, 삼성데이터시스템(주), 한국알라스카개발(주), 제일냉동식품(주), 한국전산(주), 삼성지게차(주), 한국신에츠(주), (주)하이크리에이션, (주)조신포텔, 삼성에머슨전기(주), 삼성종합화학(주), 제일시바가이(주), 삼성릴뢰크너(주), 광주전자(주), 제일보젤(주), 대경빌딩(주), 신세계대전역사(주), (주)삼테크, 삼성의료기기(주), (주)삼성경제연구소, 삼성생명서비스(주), (주)아이에스티, 한일전선(주), 대한정밀화학(주),

세일선물(주), 서현개발(주), 삼성정밀화학(주), (주)디자인신세계, 삼성자동차(주), 스탬코(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삼성신용카드(주), 삼성투자자문(주), 삼성증권(주)

3. 대우(22개)

(주)대우, 경남기업(주), (주)동남금속, 대우중공업(주), 대우정밀공업(주), 대우자동차(주), 대우기전공업(주), 코람프라스틱(주), 대우전자(주), 오리온전기(주), 대우정보시스템즈(주), (주)동우개발, (주)대우경제연구소, 한국산업전자(주), 동우공영(주), 오리온전기부품(주), 대우전자부품(주), 대우모터공업(주), 대우통신(주)

대우증권(주), 대우투자자문(주), 한국할부금융(주)

4. LG(50개)

(주)엘지화학, 엘지오웬스코닝(주), 엘지얼라이드시그널(주), 엘지엠에이(주), (주)신티론, 호남정유(주), 호유에너지(주), 세방석유(주), 호남해운(주), 엘지전자(주), 엘지전자부품(주), 엘지마이크론(주), (주)성요사, 엘지포스타(주), 엘지소프트웨어(주), 엘지히다찌(주), 엘지산전(주), 금성계전(주), 금성기전(주), 엘지하니웰(주), 엘지정보통신(주), 엘지기공(주), 엘지전선(주), 국제전선(주), (주)엘지상사, 엘지석유화학(주), 엘지반도체(주), 엘지정밀(주), (주)엘지금속, (주)엘지유통, (주)엘지레저, 엘지건설(주), 엘지엔지니어링(주), (주)엘지에드, (주)에스티엠, (주)엘지스포츠, 엘지미디어(주), 호유판매(주), (주)엘지백화점, (주)엘지경제연구원, 한무개발(주), 서울선물(주), (주)한국홈쇼핑

엘지증권(주), 엘지투자자문(주), 엘지신용카드(주), 럭키화재해상보험(주), 엘지종합금융(주), (주)부민상호신용금고, 엘지파이낸스(주)

5. 선경(32개)

(주)선경, (주)유공, (주)선경인더스트리, (주)에스케이씨, 선경건설(주), 유공

해운(주), (주)워커힐, (주)홍국상사, (주)유공가스, 유공옥시케미칼(주), 선경
 제약(주), (주)선경유통, 선경정보시스템(주), 대한텔레콤(주), 서해개발(주),
 선경창고(주), 유공에라스토퍼(주), 청주도시가스(주), 구미도시가스(주), 포
 향도시가스(주), 중부도시가스(주), 대한도시가스(주), (주)대한도시가스엔지
 니어링, (주)와이씨엔씨, (주)유공홀스, 유공하이본트(주), 선경유씨비(주),
 (주)선경경제연구소, (주)경성고무공업사, 경진해운(주)
 선경증권(주), 선경투자자문(주)

6. 쌍용(22개)

쌍용양회공업(주), (주)쌍용, 쌍용정유(주), 쌍용건설(주), 쌍용자동차(주), 쌍
 용중공업(주), 쌍용제지(주), 쌍용해운(주), (주)쌍용컴퓨터, 쌍용엔지니어링
 (주), (주)쌍용정공, 남광토건(주), 범아석유(주), (주)쌍용경제연구소, 동성고
 속관광(주), (주)진방철강,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유니참(주)
 쌍용투자증권(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쌍용투자자문(주), (주)쌍용화이넌
 스

7. 한진(23개)

(주)한진, (주)대한항공, 한진건설(주), (주)한진해운, 정석기업(주), 한국공항
 (주), (주)한국항공, 제동홍산(주), 평해광업개발(주), (주)한진관광, 한진종합
 건설(주), (주)대한종합운수, (주)한일레저, 한진정보통신(주), (주)한진중공
 업,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주), (주)항공조합서비스, (주)항공화물터미널,
 (주)한진지리정보, (주)칼(?)행개발,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한진투자증권(주), 한불종합금융(주)

8. 기아(14개)

기아자동차(주), 아세아자동차공업(주), (주)기아기공, 기아특수강(주), 기아
 서비스(주), (주)기아정기, 서해공업(주), (주)기아인터트레이드, (주)한국에
 이비시스템, 기아전자(주), 기아경제연구소(주), 아스텍(주)

아신창업투자금융(주), 기아오토파이낸스(주)

9. 한화(29개)

(주)한화, 한화에너지(주), 한화종합화학(주), (주)빙그레, 태평양건설(주), 한화기계(주), 고려시스템산업(주), 태평개발(주), 한화프리마(주), (주)한화이글스, (주)한양통운, (주)제일경제연구소, 한화엔에스케이정밀(주), 한화자동차부품(주), 서울청량리역사(주), 한화소재(주), 한화-바스프우레탄(주), 동보산업(주), 한국국토개발(주), 한화전자정보통신(주), (주)경향신문사, 삼희관광(주), (주)서울교통공사, 수원관광(주), 한화정공(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제일증권(주), 삼희투자금융(주), 제일투자자문(주)

10. 롯데(29개)

롯데제과(주), 롯데칠성음료(주), (주)롯데삼강, 롯데알미늄(주), 롯데상사(주), (주)롯데햄·롯데우유, 롯데건설(주), (주)롯데기공,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롯데쇼핑(주), 롯데냉동(주), 롯데전자(주), (주)롯데크리스탈호텔, (주)롯데자이언츠, (주)롯데리아, 호남석유화학(주), 한국후지필름(주), (주)대흥기획, (주)부산호텔롯데, (주)롯데캐논, 롯데역사(주), 롯데물산(주), (주)디디비 니드햄 다이아케이코리아, (주)국제신문, (주)코리아세븐
(주)부산은행, 부산리스금융(주), (주)부은상호신용금고

11. 금호(24개)

(주)금호, (주)금호건설, (주)아시아나항공, (주)아시아나공항, 아시아나에바카스정보(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이피고무(주), 금호셀화학(주), 금호몬산토(주), 금호미쓰이도아쓰(주), 금호지이화학(주), (주)유승무역, (주)금호개발, (주)금호중기, 금호엔지니어링(주), (주)금호텔레콤, 금호부동산중개(주), (주)대한리조트, 금호이큐에스컨설팅(주)
광주종합금융(주)

12. 두산(27개)

두산상사(주), 동양맥주(주), 두산건설(주), 두산음료(주), 두산기계(주), 두산유리(주), (주)오리콤, 두산산업(주), 두산전자(주), 두산종합식품(주), 두산제관(주), 오비씨그램(주), (주)오비베어스, (주)동아출판사, 동아인쇄(주), (주)백화, 두산기업(주), 두산개발(주), (주)덴쓰영앤드루비컴코리아, 두산렌탈(주), 두산환경산업(주), (주)경월, 두산정보통신(주), 두산엔지니어링(주), 삼화왕관(주)

한국도서보급(주), 두산창업투자(주)

13. 대림(17개)

대림산업(주), 대림요업(주), 대림홍산(주), 대림콩크리트공업(주), 대림엔지니어링(주), 대림자동차공업(주), (주)삼호, 오라관광(주), 고려개발(주), (주)제철세라믹, (주)남아화공사, 해성산업(주), (주)중부, 대림환경개발(주), (주)대림코퍼레이션

서울증권(주), (주)대한상호신용금고

14. 동아건설(14개)

동아건설산업(주), 대한통운(주), 동아엔지니어링(주), 동아관광개발(주), 동아종합개발(주), 대한통운국제운송(주), 대한통운협진(주), (주)대한통운여행사, 대한용역(주), 대한통운해운(주), 공영토건(주), (주)동아텔레비전
동아생명보험(주), 동아증권(주)

15. 한라(15개)

한라건설(주), 만도기계(주), 한라중공업(주), 한라시멘트(주), 한라공조(주), 한라콘크리트(주), 한라해운(주), 한라자원(주), (주)마이스터, 한라특장차(주), (주)캄코, 한라환경산업(주), 마이티정보통신(주), 한라제지(주)
한라창업투자(주)

16. 동국제강(16개)

동국제강(주), 한국철강(주), 동국산업(주), 부산스틸(주), 천양항운(주), 부산가스(주), 조선선재(주), 연합철강공업(주), 국제종합기계(주), 국제통운(주), 국제제철(주), 동화산업(주), 부산주공(주), (주)창원
중앙투자금융(주), (주)신중앙상호신용금고

17. 효성(15개)

효성물산(주), 동양나이론(주), 동양폴리에스터(주), 동양염공(주), 효성중공업(주), 효성바스프(주), 효성데이터시스템(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효성드라이비트(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효성비엔드에이취(주), 동광화성(주), 효성에바라(주), (유)효성에이비비, 효성정보통신(주)

18. 한보(13개)

(주)한보, 한보아파트관리(주), 한보철강공업(주), (주)한보에너지, 숭보목재(주), 한보관광(주), 숭보철강(주), 숭보엔지니어링(주), 한보정보통신(주), 상아제약(주), (주)정암생명공학연구원, (주)한맥유니온
(주)한보상호신용금고

19. 동양(19개)

동양시멘트(주), 동양제과(주), 오리온프리토레이(주), 동양마트(주), 동양선물(주), 동양해운(주), 동양에이치엔알(주), 동양산업기계(주), 오리온음료(주), 동양매직(주), 동양글로벌(주), (주)오리온카툰네트워크, 동양컨설팅(주)
동양파이내스(주), 동양증권(주), 동양투자금융(주),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주), 동양창업투자(주), 동양투자자문(주)

20. 한일(13개)

(주)한일합섬, (주)국제상사, 동서석유화학(주), 진해화학(주), 경남모직(주),

(주)남주개발, 신남개발(주), (주)한일리조트, 연합물산(주), 한일레저개발
(주), (주)한효개발, (주)한효건설
부국증권(주)

21. 코오롱(20개)

(주)코오롱, 코오롱상사(주), 코오롱건설(주), 코오롱엔지니어링(주), 코오롱
유화(주), 한국염공(주), 한국화약(주), 코오롱전자(주), 코오롱세이렌(주), 코
오롱제약(주), 코오롱정보통신(주), (주)오운개발, (주)코오롱스포렉스, 코오
롱메라크섬유(주), 고려나일론(주), 코오롱유통(주), 코오롱남바(주), 삼경북
장(주), 에이앤씨코오롱(주)
코오롱파이낸스(주)

22. 고합(10개)

고려합섬(주), 고합물산(주), 고려종합화학(주), 고려석유화학(주), (주)고합
엔지니어링, (주)고합엔프라, 한국텍사코트(주), (주)고합텍스타일, (주)케이.
엔.씨
고합팩토링(주)

23. 진로(12개)

(주)진로, (주)진로종합유통, 연합전선(주), (주)진로종합식품, (주)지티비, 진
로쿠어스팩주(주), 진로건설(주), (유)청주진로백화점, (주)진로인터내셔널,
(주)금비, (주)진로베스토아
우신투자자문(주)

24. 해태(13개)

해태제과(주), 해태음료(주), 해태산업(주), 해태상사(주), 해태전자(주), (주)
해태유통, (주)해태타이거즈, 미진금속공업(주), 해태가루비(주), (주)코래드,
(주)인켈, (주)에어로시스템, (주)인켈오디오월드

25. 삼미(8개)

(주)삼미, 삼미종합특수강(주), 삼미금속(주), (주)삼미향업, 삼미유통(주), 삼미화인세라믹스(주), 삼미기술산업(주), 삼미전산(주)

26. 동부(13개)

동부산업(주), 동부제강(주), 동부화학(주), 동부건설(주), (주)동부고속, 동부엔지니어링(주), (주)한국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쁘레용화학(주), 삼락기업(주)

한국자동차보험(주), 동부증권(주), (주)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창업투자(주)

27. 우성건설(8개)

(주)우성건설, (주)우성산업, (주)우성유통, (주)우성관광, (주)우성모직, (주)백세인터내셔널, (주)하이시스
(주)우성파이낸스

28. 극동건설(10개)

극동건설(주), 국제종합건설(주), 극동요업(주), 과천산업개발(주), (주)동서경제연구소, 원풍주택개발(주)

동서증권(주), (주)극동상호신용금고, 동서투자자문(주), 동서팩토링(주)

29. 벽산(18개)

(주)벽산, 동양물산기업(주), 벽산건설(주), 벽산개발(주), 벽산금속(주), 벽산쇼핑(주), (주)벽산화성, 벽산특수화학(주), 벽산정보산업(주), (주)벽산나포보, (주)인회, 벽산엔지니어링(주), (주)동부해양도시가스, 벽산에너지(주), (주)대일도시가스, 벽산화학(주)

벽산창업투자(주), (주)벽산상호신용금고

30. 미원(14개)

(주)미원, (주)미원유희, (주)미원농장, 미원통상(주), 베스트푸드미원(주), 미원마니커(주), 미원건설(주), (주)미란다, 미원음료(주), 에치디폴리우레탄(주), (주)상암기획, 미원정보기술(주)
대한투자금융(주), 대한창업투자(주)

<부록 2> 2000년 30대 대기업 소속회사 현황

1. 현대(25개)

스페이스브로드밴드(주), (주)현대경제연구원, (주)현대미포조선, (주)현대오토넷, (주)현대유니콘스, 고려산업개발(주), 현대건설(주), 현대상선(주), 현대석유화학(주), 현대아산(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이미지퀘스트(주),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정보기술(주), 현대종합상사(주), 현대중공업(주), 현대택배(주)

현대울산종합금융(주), 현대기술투자(주), 현대기업금융(주), 현대생명보험(주), 현대선물(주), 현대증권(주), 현대투자신탁운용(주), 현대투자신탁증권(주)

2. 삼성(63개)

(주)가치네트, (주)노비타, (주)뱅크폴, 블루텍(주), (주)삼성경제연구소, (주)삼성라이온즈, (주)씨브이네트, (주)에스원, (주)에치티에치, (주)에프엔가이드, (주)엔포에버, (주)오픈타이드코리아, (주)올앳, (주)이누카, (주)이니즈, (주)이삼성, (주)이삼성인터내셔널, (주)인스벨리, (주)제일기획, (주)크레듀, (주)호텔신라, 무진개발(주), 삼성광주전자(주), 삼성물산(주), 삼성상용차(주), 삼성생명서비스(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아이젠(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정밀화학(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코닝(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삼성테크윈(주), 삼성툽슨씨에스에프(주),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 삼육오홈케어(주), 서울통신기술(주), 스테코(주), 시큐아이닷컴(주), 유니텔(주), 제일모직(주), 케이캠닷컴(주), 한국디엔에스(주), (주)엠포스, 삼성코닝마이크로옵틱스(주), (주)한국전자정보유통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캐피탈(주), 삼성투자신탁증권(주), 삼성화

재해상보험(주)

3. 엘지(42개)

(주)데이콤,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주)데이콤세틀라이트멀티미디어 시스템, (주)실트론, (주)심마니, (주)엘지경영개발원, (주)엘지백화점, (주)엘지상사, (주)엘지스포츠, (주)엘지애드, (주)엘지유통, (주)엘지이디에스시스템, (주)엘지텔레콤, (주)엘지홈쇼핑, (주)엘지화학, (주)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극동도시가스(주),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유), 데이콤인터넷서날(주), 서라벌도시가스(주), 엘지·필립스엘시디(주), 엘지건설(주), 엘지니꼬동제련(주),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엘지마이크론(주), 엘지산전(주), 엘지석유화학(주), 엘지에너지(주), 엘지엠엠에이(주), 엘지전선(주), 엘지전자(주), 엘지이노텍(주), 엘지칼텍스가스(주), 엘지칼텍스정유(주), 엘지과워(주), 한무개발(주), 엘지아이비엠퍼서널컴퓨터(주)

(주)부민신용금고, 엘지선물(주), 엘지캐피탈(주), 엘지투자신탁운용(주), 엘지투자증권(주)

4. 에스케이(51개)

(주)넷츠고, (주)부산도시가스, (주)신세기통신, (주)아이윙즈, (주)에스케이와이번스, (주)엔시테크놀로지, (주)워크힐, (주)인투젠, (주)충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주), 구미도시가스(주), 대구전력(주), 대한도시가스(주),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더컨텐츠컴퍼니(주), 부산도시가스개발(주), 스텔라해운(주), 에스케이(주), 에스케이가스(주), 에스케이건설(주), 에스케이글로벌(주), 에스케이씨(주), 에스케이씨앤씨(주), 에스케이에머택(주), 에스케이엔론(주), 에스케이엔제이씨(주), 에스케이유씨비(주), 에스케이임업(주), 에스케이제약(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텔레택(주), 에스케이텔링크(주), 에스케이해운(주), 엠알오코리아(주), 와이드터넛닷컴(주), 이리둠코리아(주), 익산도시가스(주), 익산에너지(주), 인포섹코리아(주), 전남도시가스(주), 청주도시가스(주), 포항도시가스(주), 빌플러스(주), 이노에이

스(주), (주)정지원, (주)엠애드넷

에스케이생명보험(주), 에스케이증권(주), 에스케이캐피탈(주), 에스케이투자
신탁운용(주)

5. 한진(19개)

(주)대한항공, (주)싸이버로지텍, (주)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 (주)한국종합기
술개발공사, (주)한일레저, (주)한진, (주)한진관광, (주)한진중공업, (주)한진
해운, 거양해운(주), 부산3부두운영(주), 인천항3부두운영(주), 정석기업(주),
토파스여행정보(주), 포항항7부두운영(주), 한국공항(주), 한진정보통신(주)
동양화재해상보험(주), 한불종합금융(주)

6. 롯데(31개)

(주)대흥기획, (주)롯데기공, (주)롯데닷컴, (주)롯데리아, (주)롯데삼강, (주)
롯데자이언츠, (주)롯데전자, (주)롯데캐논, (주)롯데햄롯데우유, (주)스위스
브랑제리, (주)코리아썸브, (주)하이스타, (주)호텔롯데, (주)호텔롯데부산,
롯데건설(주), 롯데냉동(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산업
(주), 롯데상사(주), 롯데쇼핑(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역사(주), 롯데정보통
신(주), 롯데제과(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후레쉬델리카(주), 한국후지필
름(주), 호남석유화학(주), (주)모비도미
롯데캐피탈(주)

7. 대우 - 지정제외(2000.7.19)

8. 금호(18개)

금호개발(주), 금호본산토(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산업(주), 금호석유
화학(주), 금호엔지니어링(주), 금호케미칼(주), 금호폴리켄(주), 금호피앤비
화학(주), 아시아나공항개발(주), 아시아나공항서비스(주), 아시아나트래블포
탈(주), 아시아나지원시설(주), 아시아나항공(주), 인천공항외항사터미널(주)

금호생명보험(주), 금호종합금융(주), 금호캐피탈(주)

9. 한화(25개)

(주)동양백화점, (주)엔갤러리아, (주)에이치팜, (주)한국전자증명원, (주)한양상사, (주)한컴, (주)한화, (주)한화유농, (주)한화이글스, 동일석유(주), 부평판지(주), 투어몰닷컴(주), 한화개발(주), 한화관광(주), 한화국토개발(주), 한화석유화학(주), 한화소재(주), 한화역사(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포리마(주), 환경시설운영(주)

한화기술금융(주), 한화증권(주), 한화투자신탁운용(주), 한화파이낸스(주)

10. 쌍용(21개)

(주)쌍용, (주)오산에너지, (주)용평리조트, (주)진방철강, 국민콘크리트공업(주), 남광토건(주), 서해에너지(주), 수정산터널(주), 쌍용건설(주), 쌍용머티리얼(주), 쌍용양회공업(주), 쌍용엔지니어링(주), 쌍용자원개발(주), 쌍용정공(주), 쌍용정보통신(주), 쌍용해운(주), 오주개발(주), 용인개발(주), 유일개발(주)

쌍용캐피탈(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11. 한솔(20개)

(주)경보, (주)한솔, (주)한통엔지니어링, 판아시아페이퍼(주), 한솔개발(주), 한솔건설(주), 한솔씨에스엔(주), 한솔아이글로브(주), 한솔전자(주), 한솔제지(주), 한솔케미언스(주), 한솔텔레콤(주), 한솔파텍(주), 한솔포렘(주), 한솔홍진(주)

(주)한솔상호신용금고, 한솔아이벤처스(주), 한솔아이홀딩스(주), 한솔창업투자(주), 한솔캐피탈(주)

12. 두산(17개)

(주)넵쓰영앤드루비컴코리아, (주)두산, (주)두산베어스, (주)두산콘프로덕츠

코리아, (주)오리콤, 두산건설(주), 두산기업(주), 두산엔지니어링(주), 두산
타워상가관리(주), 두산테크팩(주), 삼화왕관(주), 새재개발(주), 세미콘테크
(주), 오비맥주(주), 카스맥주(주)
네오플렉스캐피탈(주), 한국도서보급(주)

13. 현대정유(2개)

인천정유(주), 현대정유(주)

14. 동아 - 지정제외(2000.11.29)

15. 동국제강(8개)

국제종합기계(주), 국제통운(주), 동국제강(주), 동화산업(주), 부산제철부두
운영(주), 부산항사부두운영(주), 연합철강공업(주), 천양항운(주)

16. 효성(15개)

(주)브릿지솔루션그룹, (주)효성, (주)효성미디어, 동양염공(주), 두미종합개
발(주), 효성건설(주), 효성데이타시스템(주), 효성드라이비트(주), 효성에바
라(주), 효성에바라환경엔지니어링(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효성트랜
스월드(주), 이지스벤처그룹(주), 흥진데이타서비스(주)
효성캐피탈(주)

17. 대림(19개)

(주)대림코퍼레이션, (주)삼호, (주)아이씨티로, (주)중부, (주)중부파킹시스
템, 고려개발(주), 대림산업(주), 대림자동차공업(주), 대림정보통신(주), 대
림콩크리트공업(주), 반월산터널(주), 오라관광(주), 한림상운(주), 해성산업
(주), (주)이게임즈
(주)대한상호신용금고, 웹텍창업투자(주), 서울증권(주), 한일투자신탁운용
(주)

18. 에쓰오일 - 지정 제외(2000.11.22)

19. 동부(19개)

(주)동부아데카, 동부건설(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동부전자(주), 동부정밀화학(주), 동부정보기술(주), 동부정보시스템(주), 동부제강(주), 동부한농화학(주), 부산항중앙부두운영(주), 삼락기업(주), 원림개발(주)

동부생명보험(주), 동부신용금고(주), 동부캐피탈(주), 동부증권(주), 동부투자신탁운용(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20. 코오롱(22개)

(주)리치엔페이머스, (주)월드와이드넷, (주)이엔퓨처, (주)케이티피, (주)코오롱, (주)코오롱스포렉스, 센터코리아(주), 코오롱개발(주), 코오롱건설(주), 코오롱글로텍(주), 코오롱마트(주), 코오롱모터스(주), 코오롱상사(주), 코오롱신용정보(주), 코오롱유화(주), 코오롱정보통신(주), 코오롱제약(주), 타임도메인코리아(주), 티슈진아시아(주), 코오롱패션(주)

(주)아이퍼시픽파트너스, 코오롱할부금융(주)

21. 동양(29개)

(주)동양레저, (주)동양에이치앤알, (주)미디어플렉스, (주)바둑텔레비전, (주)아이씨비엘, (주)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주)온게임네트워크, (주)온미디어, (주)제미로온라인, (주)투니버스, 동궁산업(주), 동양레포츠(주), 동양마트(주), 동양매직(주), 동양메이저(주), 동양시스템즈(주), 동양제과(주), 씨네플렉스(주), 오리온음료(주), 오리온프리드레이(주)

동양생명보험(주), 동양선물(주), 동양오리온투자신탁(주), 동양종합금융(주), 동양증권(주), 동양창업투자(주), 동양카드(주), 동양캐피탈(주), 동양투자신탁운용(주)

22. 고합(6개)

(주)고합, (주)고합엔프라, (주)서울엠티, 경일건설(주), 고합정밀화학(주)
서울할부금융(주)

23. 제일제당(27개)

(주)룩티비, (주)뮤직네트워크, (주)씨제이삼구쇼핑, (주)씨제이코퍼레이션,
(주)아이삼구, (주)양천케이블티브이, 드림라인(주), 드림뮤직(주), 씨제이개
발(주), 씨제이드림소프트(주), 씨제이빌리지(주), 씨제이푸드시스템(주), 씨
제이엔터테인먼트(주), 씨제이지엘에스(주), 이클라인(주), 모닝웰(주), 제일
방송(주), 제일제당(주), 푸드빌(주), 한국케이블티브이경남방송(주), 한일식
자재마트(주), (주)한국케이블TV마산방송, (주)조이렌트카
드림디스커버리(주), 제일선물(주), 제일투자신탁운용(주), 제일투자신탁증권
(주)

24. 대우전자(4개)

(주)테크라프, 대우모터공업(주), 대우전자(주), 대우전자서비스(주)

25. 현대산업개발(9개)

(주)아이콘트롤스, 세일기계(주), 아이엔콘스(주), 아이서비스(주), 현대산업
개발(주), 현대엔지니어링플라스탁(주), 현대피씨엔지니어링(주), (주)케이에
이취
아이투자신탁운용(주)

26. 아남(12개)

(주)아남인스트루먼트, (주)아남정보기술, (주)아큐텍반도체기술, (주)와이어
리스트테크, (주)제성씨엔엠, 동안종합개발(주), 아남건설(주), 아남반도체(주),
아남전자(주), 아남지오넷(주), 아남텔레콤(주), 아남환경(주)

27. 새한(12개)

(주)새한, (주)새한로직스, (주)신영인더스트리, (주)애니비에스,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새한디엔시(주), 새한마텍(주), 새한미디어(주), 새한전자(주), 새한정보시스템(주), 새한텔레콤(주), 제일시바가이거(주)

28. 진로(16개)

(유)청주백화점, (주)고려양주, (주)삼원, (주)우신공영, (주)지티비, (주)진로, (주)진로베스트아, (주)진로산업, (주)진로종합식품, (주)진로종합유통, (주)진우기계, 진로건설(주), 진로식품판매(주), 진로지리산샘물(주), 진우통신(주)

우신투자자문(주)

29. 신세계(11개)

(주)광주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주)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신세계푸드시스템, (주)에스코코리아, (주)조선포텔, 신세계건설(주), 해운대개발(주)

(주)신세계상호신용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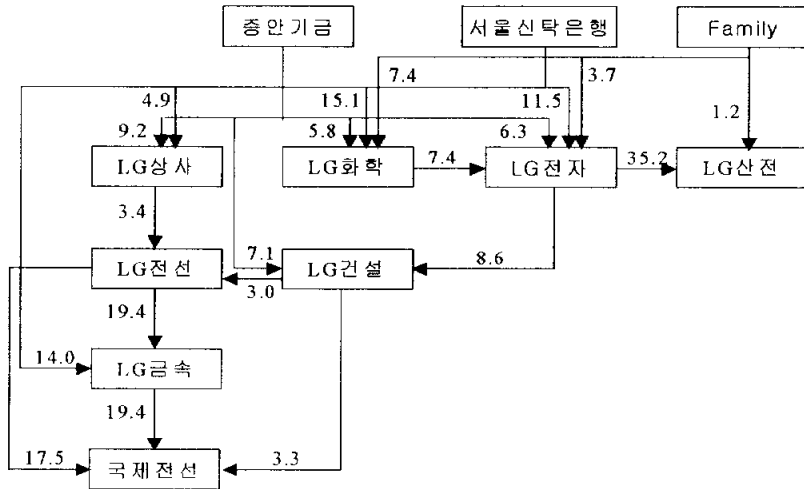
30. 영풍(24개)

(주)서린유통, (주)에스티아이, (주)에어미디어, (주)영풍, (주)영풍문고, (주)이베레데, (주)칼린코리아, 고려아연(주), 고려에너지(주), 고려산업기계(주), 고려증장비(주), 서린상사(주), 서린정보기술(주), 세원텍스타일(주), 영풍개발(주), 영풍산업(주), 영풍전자(주), 영풍정밀(주), 유미개발(주), 코리아니켈(주), 한국시그네틱스(주), 한국전자화학(주), 케이지엔지니어링(주)

영풍생명보험(주)

<부록 3> 1995년 4위-30위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1. 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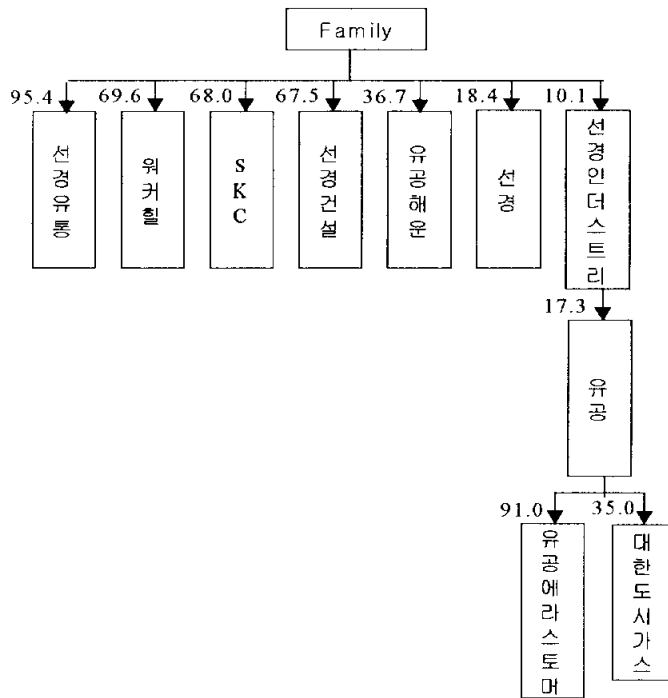
4위 엘지

엘지의 경우 50개의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7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5개사를 제외한 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995년 엘지의 경우 분석대상 기업 중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 회사는 없고, 그룹 내의 핵심기업인 LG상사, LG화학, LG전자를 증권신탁은행과 서울신탁은행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엘지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중 4개사는 금융기관지배형, 3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 선정



5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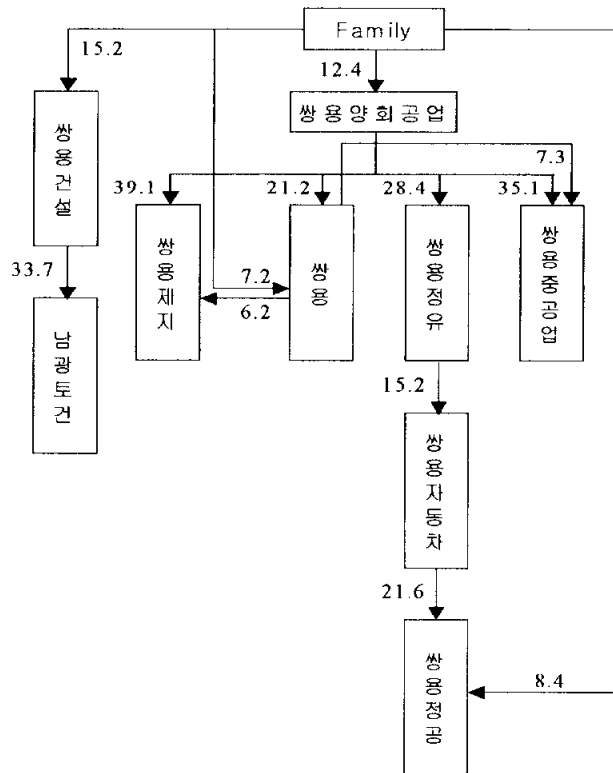
선정의 경우 22개의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0개사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종현 일가는 7개사에 대해 직접 지분을 소유하며 이들 7개사 선정유통, 위커희, SKC, 선정건설, 유공해운, 선정, 선정인더스트리의 최대주주이다.

유공은 선정인더스트리가 최대주주이고, 유공에라스토머와 대한도시가스의 최대주주는 유공이다. 그러나 선정인더스트리의 최종 소유자가 일가이므로 3회사 또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이 때 유공과 유공에라스토머, 대한도시가스에 대해 일가가 갖는 지분은 각각 10.1%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선정그룹의 분석대상 기업인 10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3. 쌍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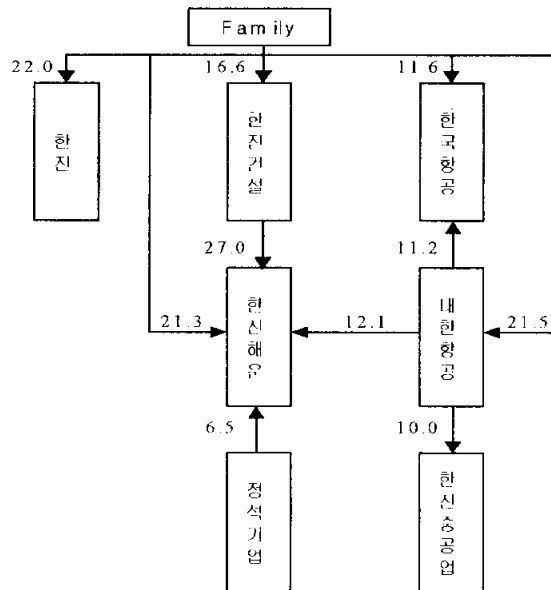
6위 쌍용

쌍용의 경우 2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9개사를 제외한 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석준 일가가 직접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은 쌍용건설, 쌍용양회공업, 쌍용, 쌍용정공의 4개사 이고, 이 중 2개사 쌍용건설과 쌍용양회공업의 최대주주이다. 쌍용양회공업은 쌍용제지, 쌍용, 쌍용정유, 쌍용중공업의 최대주주이지만, 쌍용양회공업을 일가가 12.4% 소유함으로써 이들 기업도 일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각각 12.4%, 19.6%, 12.4%, 42.4%이다. 남광토건, 쌍용자동차, 쌍용정공 역시 일가의 지배를 받고, 이 때 남광토건, 쌍용자동차, 쌍용정공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5.2%, 12.4%, 20.8%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쌍용 그룹의 분석대상 기업인 9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4. 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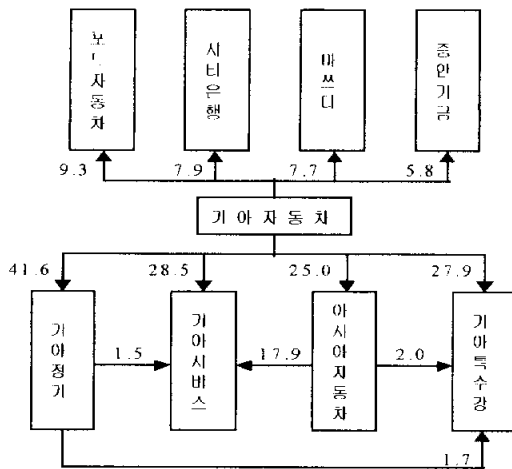
7위 한진

한진의 경우 총 2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4개사를 제외한 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중훈 일가는 한진, 한진건설, 한국항공, 대한항공, 한진해운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한진건설, 한국항공, 대한항공, 한진의 최대주주이다. 한진해운은 한진건설이 지분의 27.0%를 소유하지만, 한진건설 지분을 일가가 16.6% 소유함으로 한진해운에 대해 16.6%의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한진해운, 대한항공, 한진중공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50.0%, 21.5%, 10.0%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진그룹의 분석대상 기업인 6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5. 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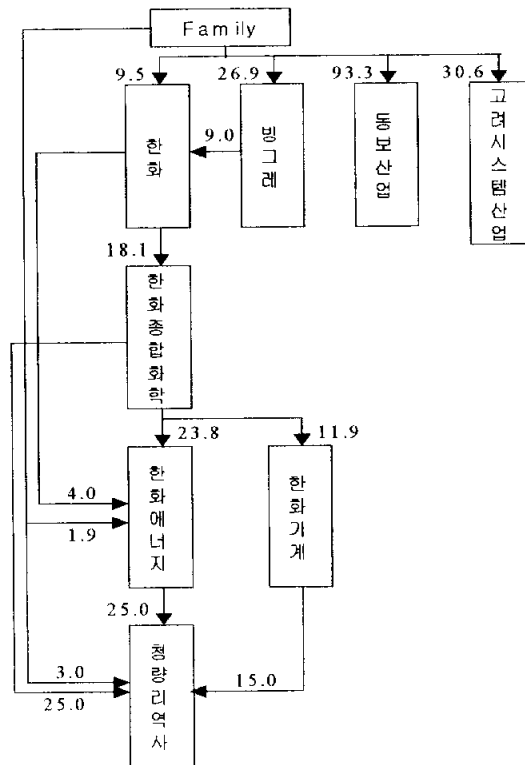
8위 기아

기아의 경우 14개의 소속회사 중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7개사를 제외한 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아는 기업의 핵심기업인 기아자동차를 포드자동차와 시티은행, 마쓰다, 증권안정기금에서 각각 9.3%, 7.9%, 7.7%, 5.8%를 소유하고 있어 최종 소유 기준인 10%를 넘는 최대주주가 없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어떠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기아자동차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아정기, 기아서비스, 기아자동차, 기아특수강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지분은 각각 41.6%, 28.5%, 25.0%, 27.9%이므로 회사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기아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5개사 중 4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6. 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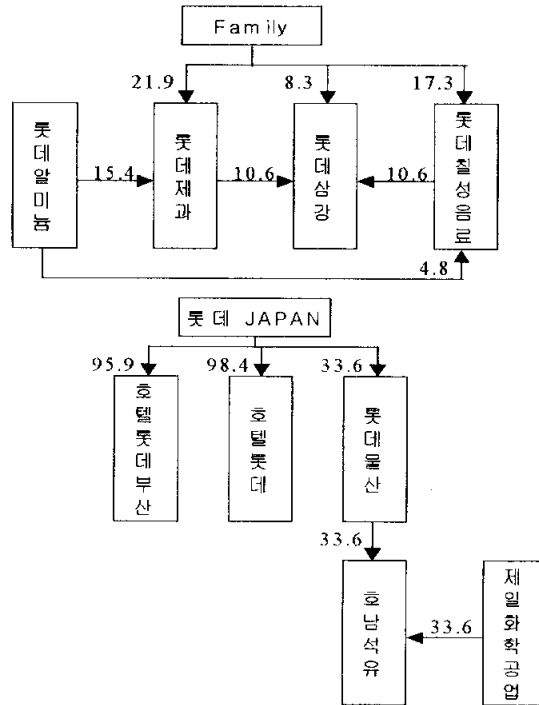
9위 한화

한화그룹의 경우 총 2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7개사를 제외한 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승연 일가는 한화, 빙그레, 동보산업, 고려시스템산업, 한화에너지, 청량리역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4개사의 최대주주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기계의 최대주주는 한화종합화학이고, 청량리역사의 최대주주는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다. 한화종합화학의 최대주주는 한화이고, 한화의 지분 중 18.5%를 일가가 소유하므로 이들도 일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한화종합화학, 한화에너지, 한화기계, 청량리역사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8.1%, 24.0%, 11.9%, 51.1%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화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8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7. 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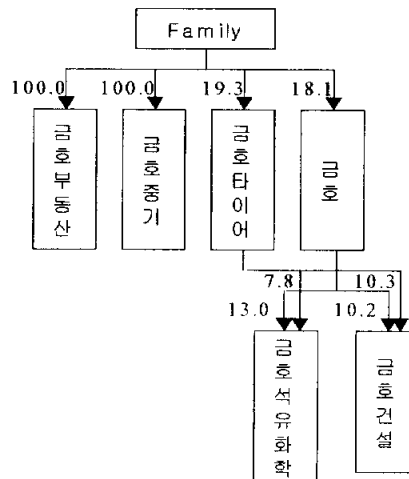
10위 롯데

롯데의 경우 2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7개사를 제외한 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격호 일가는 롯데제과, 롯데삼강, 롯데칠성음료의 3개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의 최대주주이다. 롯데제과, 롯데삼강,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21.9%, 18.9%, 17.3%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호텔롯데부산, 호텔롯데, 롯데물산의 최대주주는 롯데 JAPAN으로 가족 소유라고 볼 수 없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롯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9개사 중 3개사만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8. 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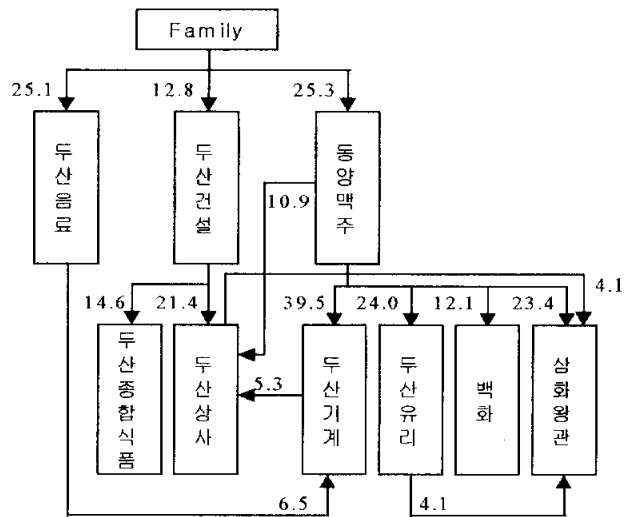
11위 금호

금호의 경우 24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7개사를 제외한 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성용 일가는 금호부동산, 금호중기, 금호타이어, 금호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또한 금호와 금호타이어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지분이 각각 20.8%, 20.5%이므로 일가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건설에 대해 갖는 지분은 각각 20.8%, 20.5%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금호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6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9. 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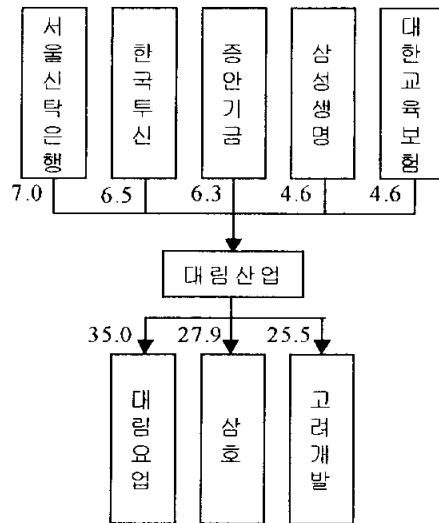
12위 두산

두산의 경우 27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6개사를 제외한 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용곤 일가는 두산유료와 두산건설, 동양맥주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두산종합식품과 두산상사의 최대주주는 두산건설이고, 두산기계, 두산유리, 백화, 삼화왕관의 최대주주는 동양맥주이다. 그러나 두산건설과 동양맥주의 최대주주는 일가이므로 이 6개사도 일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6개사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2.8%, 29.0%, 31.8%, 24.0%, 12.1%, 31.6%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두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9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0. 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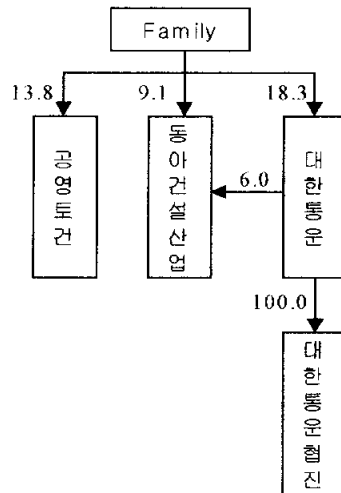
13위 대림

대림의 경우 17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1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림의 경우 대림산업이 대림요업, 삼호, 고려개발의 최대주주이지만 핵심기업인 대림산업을 한국신택은행, 한국투신, 증시안정기금, 삼성생명, 대한교육보험에서 각각 7.0%, 6.5%, 6.3%, 4.6%, 4.6%를 소유하고 있어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넘는 대주주가 없어 본 연구에서 분류한 소유-지배구조 유형에는 속하지 않는다. 대림요업과 삼호, 고려개발의 지분을 대림산업이 각각 35.0%, 27.9%, 25.5%를 소유하므로 이들은 대림산업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금호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중 3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1. 동아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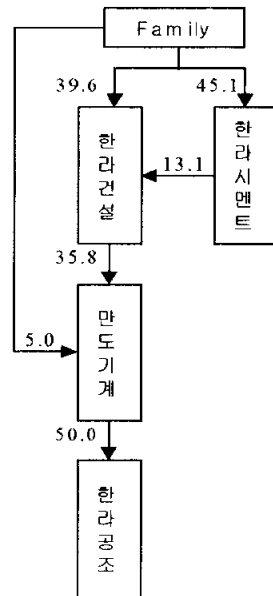
14위 동아

동아건설의 경우 14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 수집이 어려운 8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원식 일가는 공영토건, 동아건설산업, 대한통운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대한통운합진의 최대주주는 대한통운인데, 대한통운의 최대주주가 일가이므로 대한통운합진도 일가의 지배를 받으며 이 때 지분은 18.3%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아건설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2. 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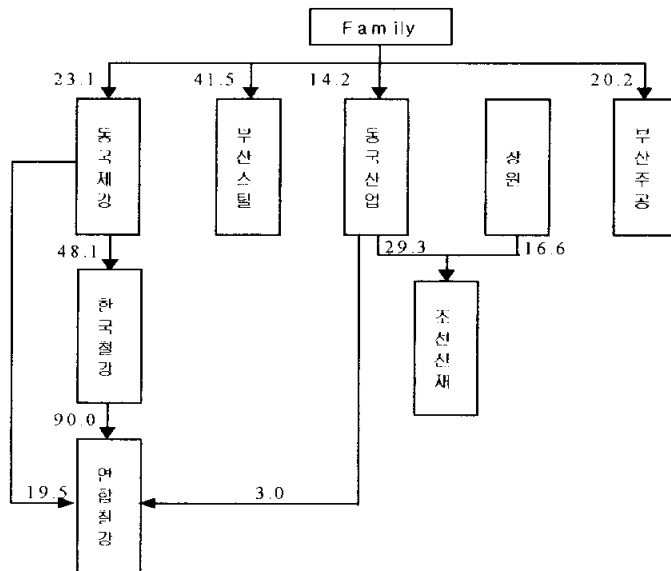
15위 한라

한라의 경우 15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0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인영 일가는 한라건설과 한라시멘트의 지분을 각각 39.6%, 45.1%를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만도기계의 최대주주는 한라건설이고, 한라공조의 최대주주는 만도기계이지만 만도기계와 한라공조의 최종 소유자는 일가로 보았다. 이때 만도기계와 한라공조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40.8%, 35.8%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라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3. 동국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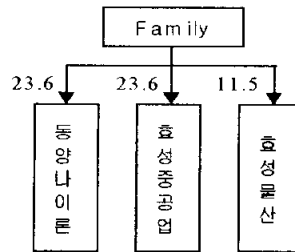
16위 동국제강

동국제강의 경우 16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 수집이 어려운 7개사를 제외한 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상대 일가는 동국제강, 부산스틸, 동국산업, 부산주공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한국철강의 최대주주는 동국제강, 연합철강의 최대주주는 한국철강, 조선신채의 최대주주는 동국산업이다. 그러나 동국제강, 한국철강, 동국산업은 일가의 지배를 받으므로 한국철강, 연합철강, 조선신채도 일가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각각 23.1%, 45.6%, 14.2%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국제강 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7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4. 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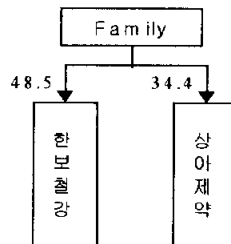
17위 효성

효성의 경우 15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2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석래 일가는 동양나이론, 효성중공업, 효성물산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일가가 동양나이론, 효성중공업, 효성물산의 지분을 각각 23.6%, 23.6%, 11.5%를 소유하므로 직접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효성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5. 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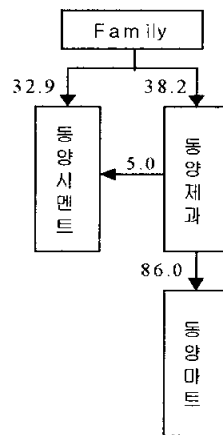
18위 한보

한보의 경우 1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0개사를 제외한 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태수 일가는 한보철강과 상아제약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고, 직접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보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6. 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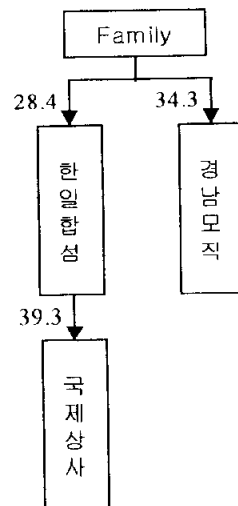
19위 동양

동양의 경우 1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6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0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현 일가는 동양시멘트와 동양제과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며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동양마트의 최대주주는 동양제과이지만 동양제과의 지분을 일가가 38.2% 소유하므로 동양마트도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고 지분은 38.2%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양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7. 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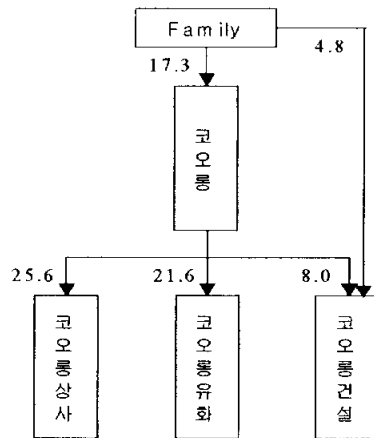
20위 한일

한일의 경우 1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9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중원 일가는 한일합섬과 경남모직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한일합섬과 경남모직은 직접 소유한 지분이 각각 28.4%와 34.3%이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국제상사의 최대주주는 한일합섬이지만, 한일합섬의 지분을 일가가 28.4%를 소유하므로 국제상사도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때 지분은 28.4%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일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8. 코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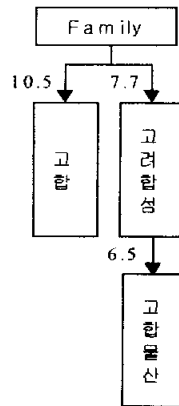
21위 코오롱

코오롱의 경우 20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5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찬 일가는 코오롱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코오롱은 코오롱상사, 코오롱유화, 코오롱건설의 최대주주이다. 코오롱의 지분을 일가가 17.3% 소유하므로 이들도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일가가 코오롱상사, 코오롱유화, 코오롱건설에 대해 갖는 지배력은 각각 17.3%, 17.3%, 12.8%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코오롱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9.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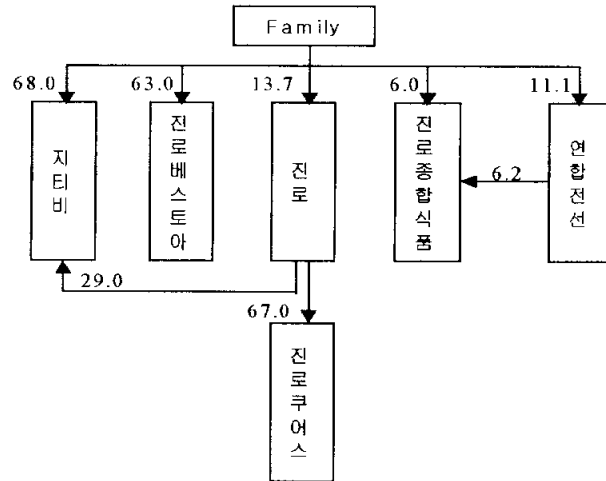
22위 고택

고합의 경우 10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6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치혁 일가는 고합과 고려합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데 고합의 경우 10.5%의 지분을 소유하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고려합섬은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소유하지 않아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고합물산의 지분 6.5%를 고려합섬이 소유하는데 고려합섬의 지분을 일가가 7.7% 소유하므로 고합물산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고택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중 1개사만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0.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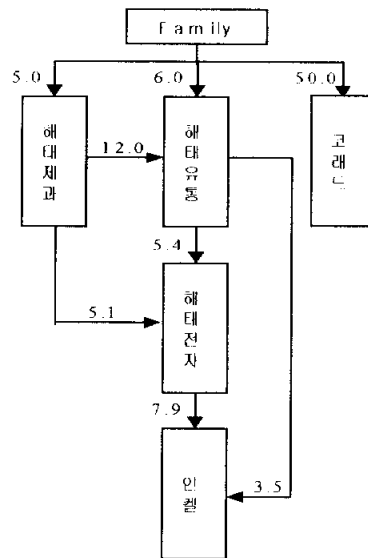
23위 진로

진로의 경우 1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진호 일가는 지티비, 진로베스트아, 진로, 진로종합식품, 연합전선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지티비, 진로베스트아, 진로, 연합전선의 최대주주이다. 진로종합식품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직접 보유한 6.0%와 연합전선을 통한 지분 6.2%를 합한 12.2%이고, 진로쿠어스맥주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13.7%이며, 지티비에 대한 지분은 81.7%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진로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6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1. 해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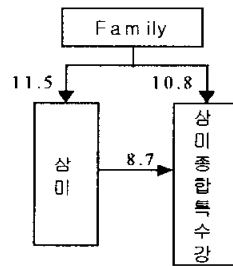
24위 해태

해태의 경우 1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8개사를 제외한 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건배 일가는 해태제과, 해태유통, 코래드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코래드의 최대주주이다. 해태유통과 해태전자, 인켈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0.0%, 10.4%, 11.4%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해태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5개사 중 4개사만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2. 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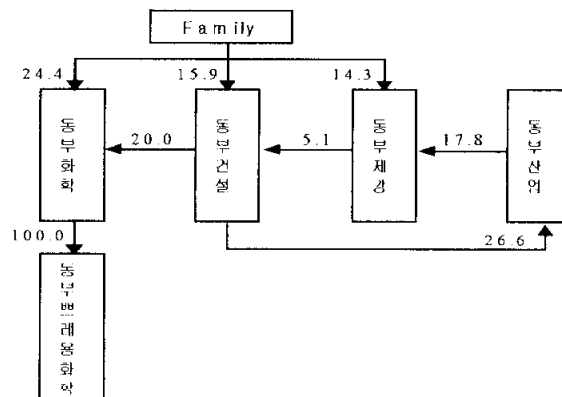
25위 삼미

삼미의 경우 8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6개사를 제외한 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현철 일가는 삼미와 삼미종합특수강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삼미의 지분은 11.5%, 삼미종합특수강의 지분은 19.5%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삼미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3.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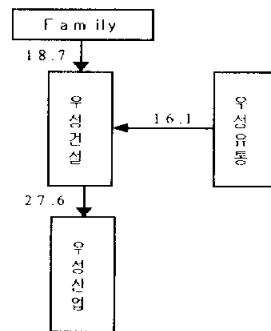
26위 동부

동부의 경우 13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준기 일가는 동부화학, 동부건설, 동부제강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동부브레용화학의 최대주주는 동부화학이고, 동부산업의 최대주주는 동부건설이지만 동부화학과 동부건설의 최대주주는 일가이므로 이들도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 동부브레용화학과 동부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00.0%, 26.6%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부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5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4. 우성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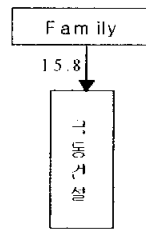
27위 우성건설

우성건설의 경우 8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주호 일가는 우성건설의 최대주주이고 직접 소유한 지분이 18.7%이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성산업의 최대주주는 우성건설이므로 우성건설 또한 일가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 때 우성건설에 대한 지분은 18.7%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우성건설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5. 극동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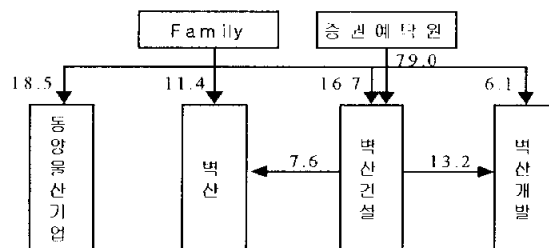
28위 극동

극동의 경우 10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용산 일가는 극동건설의 지분 15.8%를 소유하므로 직접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극동건설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개사는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6. 벽산



29위 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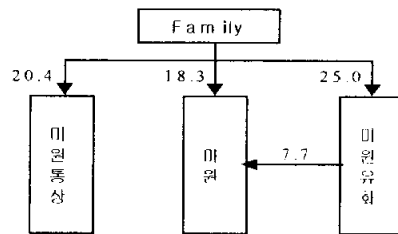
벽산의 경우 18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2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희철 일가는 분석대상 기업 4개사의 지분을 모두 직접 소유하고, 동양물산기업과 벽산의 최대주주이다. 벽산건설의 최대주주는 증권예

탁원으로 79.0%나 소유하고 있으나, 일가 또한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동양기업과 벽산, 벽산건설, 벽산개발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8.5%, 19.0%, 16.7%, 19.3%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벽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7. 미원



30위 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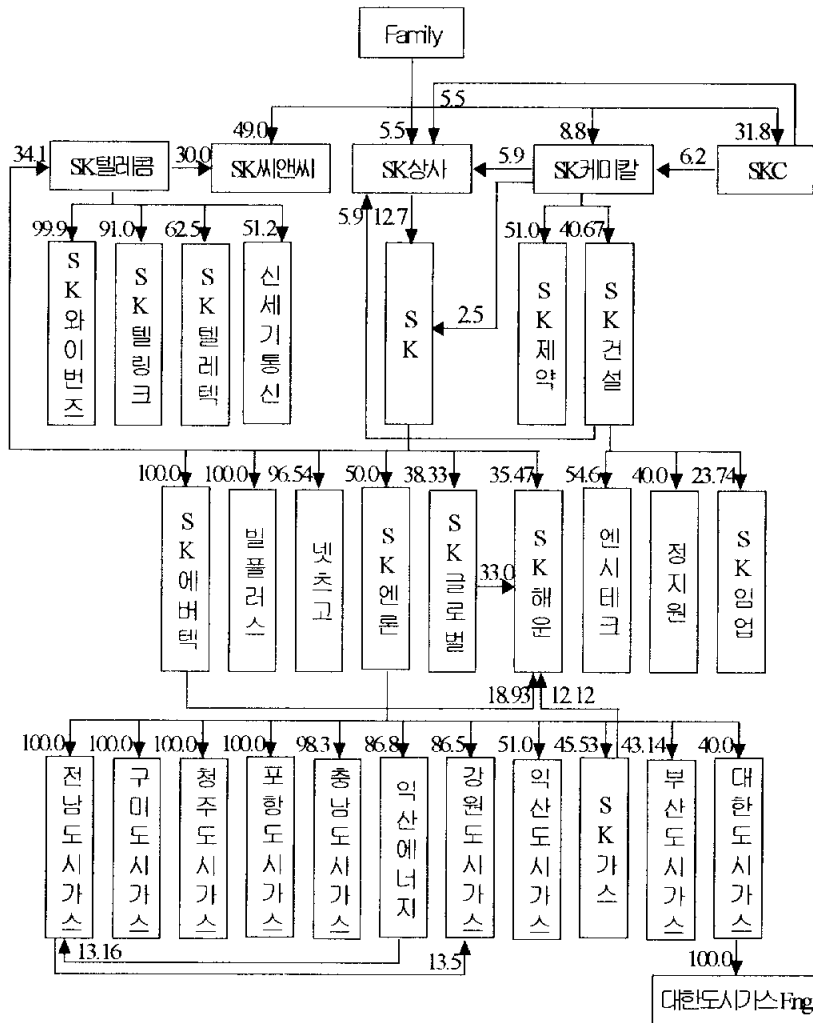
미원의 경우 14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9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창욱 일가는 미원통상, 미원, 미원유화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이 때 일가의 미원통상, 미원, 미원유화에 대한 지분은 각각 20.4%, 26.0%, 25.0%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미원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부록 4> 2000년 4위-30위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유형 분석결과

1. 에스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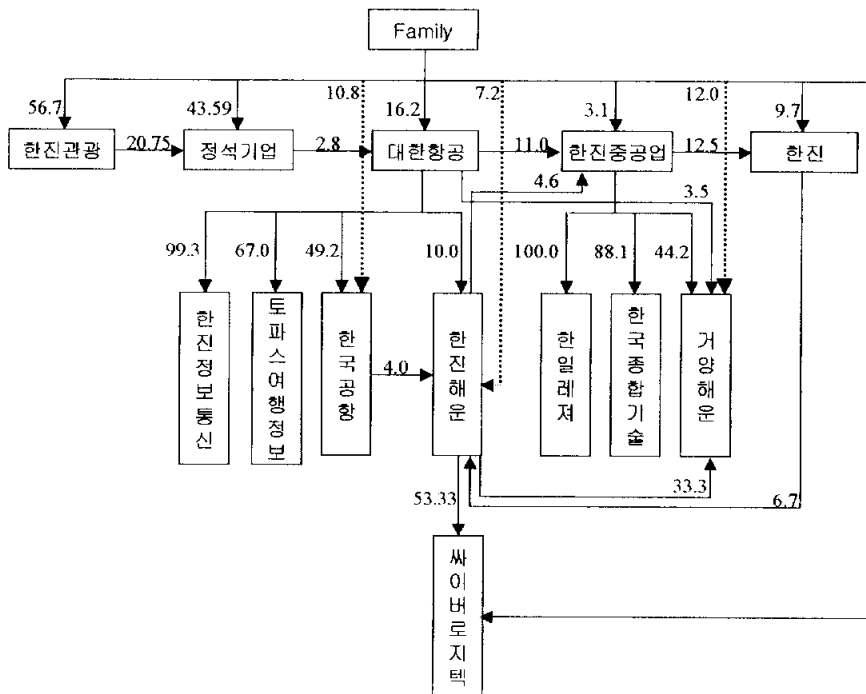
4위 에스케이

SK의 경우 51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4개사를 제외한 3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태원 일가는 SK씨앤씨, SK상사, SK케미칼, SK씨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SK씨앤씨와 SK케미칼, SKC의 최대주주이다. SK그룹의 경우 SK텔레콤과, SK, SK엔론이 많은 계열기업의 최대주주로 있다. SK텔레콤과, SK, SK엔론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각각 15.2%, 15.2%, 50.0% 이므로, 이 계열기업들도 가족의 지배를 받는다. SK와이번즈, SK텔링크, SK텔레텍, 신세기통신은 SK텔레콤이 최대주주이며, 일가의 지분율은 15.2%이다. SK에버택, 빌플러스, 넷츠고, SK엔론, SK글로벌, SK 해운은 SK가 최대주주이고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00.0%, 100.0%, 96.54%, 50.0%, 38.33%, 68.47%이다. 엔시테크, 정지원, SK임업은 SK건설이 최대주주이고,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51.0%, 40.0%, 23.74%이고, 나머지 도시가스기업들은 SK엔론이 최대주주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SK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 한·진



5위 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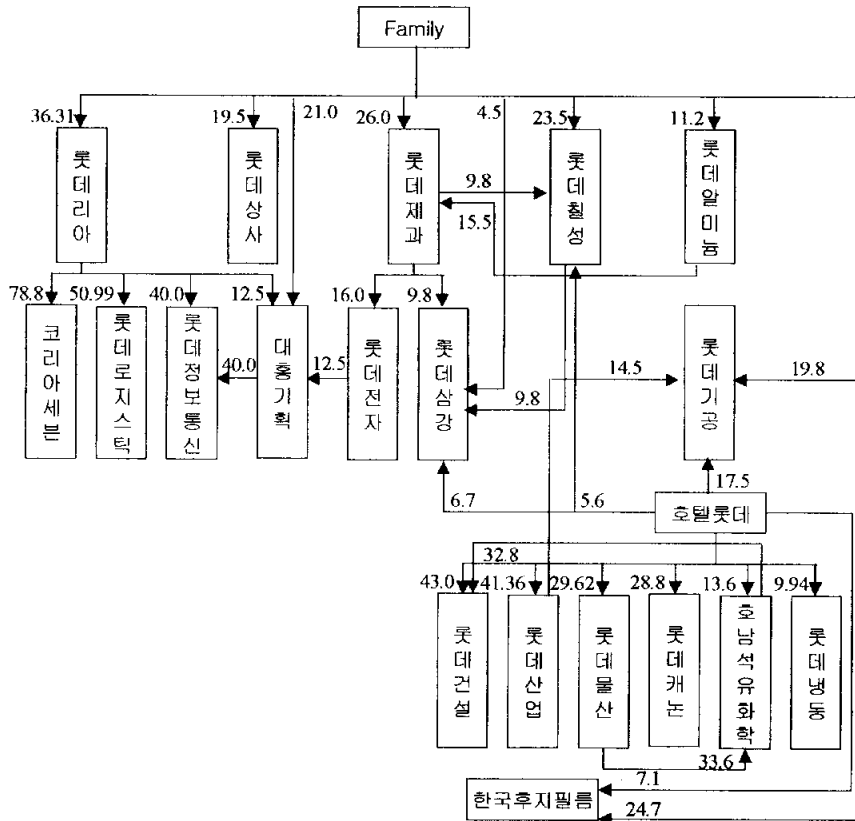
한진외의 경우 1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중훈 일가는 한진관광, 정석기업,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한진, 한국공항, 한진해운, 거양해운, 싸이버로지텍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한진관광, 정석기업,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이다. 한진정보통신, 토파스여행정보, 한국공항,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이 최대주주이고, 한일레저, 한국종합기술, 거양해운은 한진중공업이 최대주주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각각 19.0%, 14.1%로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이므로 이 기업들도 가족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이 기업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한진정보통신 99.3%, 토파스여행정보 67.0%, 한국공항 60.0% 한진해운 17.2%, 한일레저 100.0%, 한국종합기술 88.1%, 거양해운

56.2%, 싸이버로지텍 93.33%로 모두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이다.

따라서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진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3. 롯데



6위 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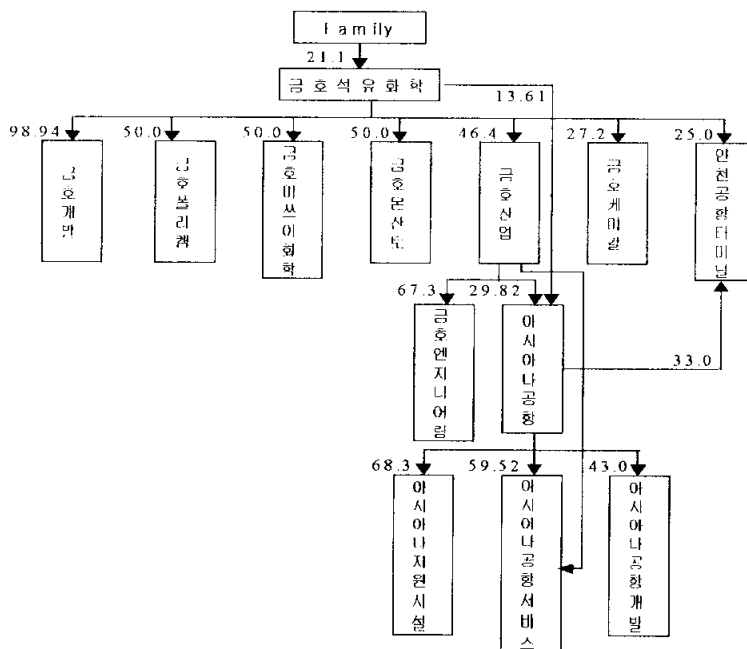
롯데의 경우 31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0개사를 제외한 2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격호 일가는 롯데리아, 롯데상사,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알미늄, 대흥기획, 롯데삼강, 롯데기공, 한국후지필름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

고, 이 중 롯데리아, 롯데상사,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알미늄, 대흥기획, 롯데기공, 한국후지필름의 최대주주이다. 호텔롯데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건설, 롯데산업, 롯데물산, 롯데캐논, 호남석유화학, 롯데냉동의 경우 호텔롯데의 지분율을 파악할 수가 없어 호텔롯데가 지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외 기업들에 대해 일가가 갖는 지분율은 코리아세븐 36.31%, 롯데로지스틱스 36.31%, 롯데정보통신 36.31%, 대흥기획 46.0%, 롯데전자 16.0%, 롯데삼강 24.1%, 롯데기공 19.8%, 한국후지필름 24.7%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롯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0개사 중 13개사는 가족지배형, 6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4. 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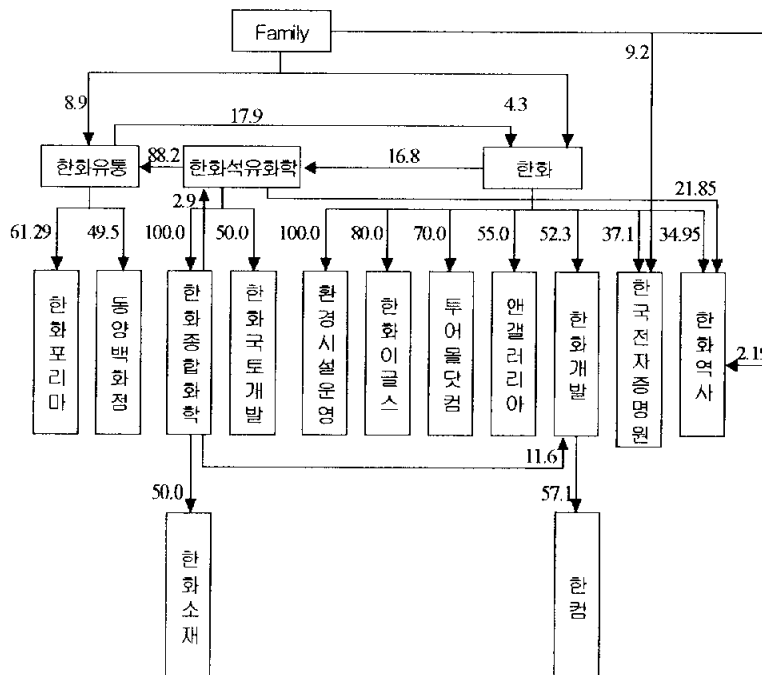
8위 금호

금호의 경우 18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3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2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성용 일가는 금호석유화학의 지분을 21.2% 소유하므로써 그룹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개발, 금호폴리켄, 금호비쓰이화학, 금호본산토, 금호산업, 금호케미칼의 최대주주이고, 금호산업이 다시 금호엔지니어링과 아시아나공항의 최대주주이다. 아시아나공항은 아시아나지원시설,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아시아나공항개발, 인천공항터미널의 최대주주이다.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21.2%이고, 금호엔지니어링은 21.1%, 아시아나공항은 34.71%, 아시아나지원시설은 68.3%, 아시아나공항서비스는 59.52%, 아시아나공항개발은 43.0%, 인천공항터미널은 42.4%를 가진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금호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5. 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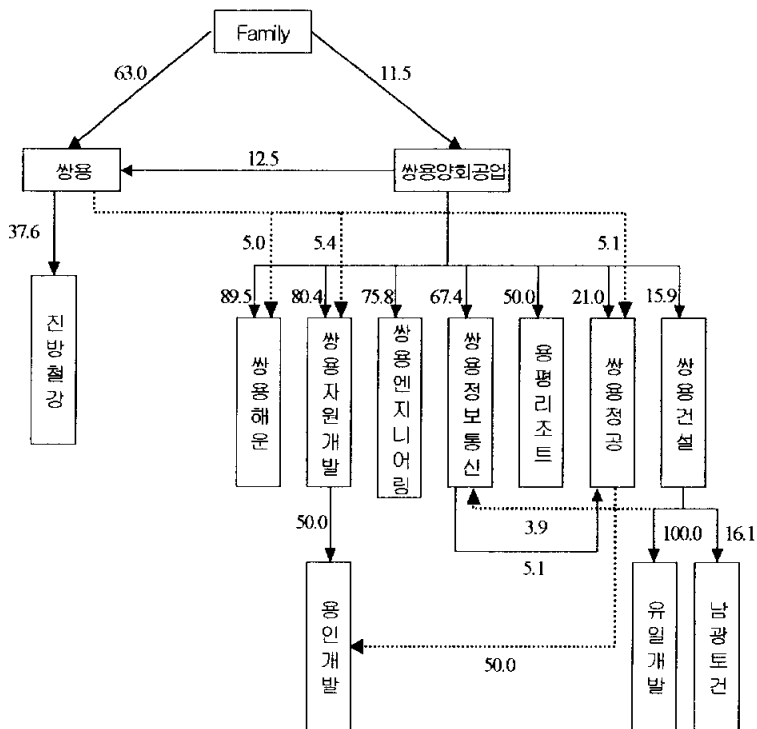
9위 한화

한화의 경우 25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1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승연 일가는 한화유통과 한화, 한국전자증명원, 한화역사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한다. 대부분의 계열기업들은 한화가 최대주주인데 한화를 일가가 13.2% 지배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배력을 갖는다. 계열기업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을 살펴보면, 한화유통을 통해 한화포리마에 대해서는 61.29%, 동양백화점에 대해서는 49.5%의 지배력을 가진다. 한화석유화학의 경우 한화종합화학과 한화국토개발의 최대주주이지만 한화석유화학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4.3%이므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국토개발은 가족지배형이 아닌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한화를 통해서 일가가 계열기업들에 대해 갖는 지분은 환경시설운영 100.0%, 한화이글스 80.0%, 투어볼닷컴 70.0%, 앤젤러리아 55.0%, 한화개발 52.3%, 한국전자증명원 46.3%, 한화역사 41.44%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화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6개사 중 12개사는 가족지배형, 4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6. 쌍용



10위 쌍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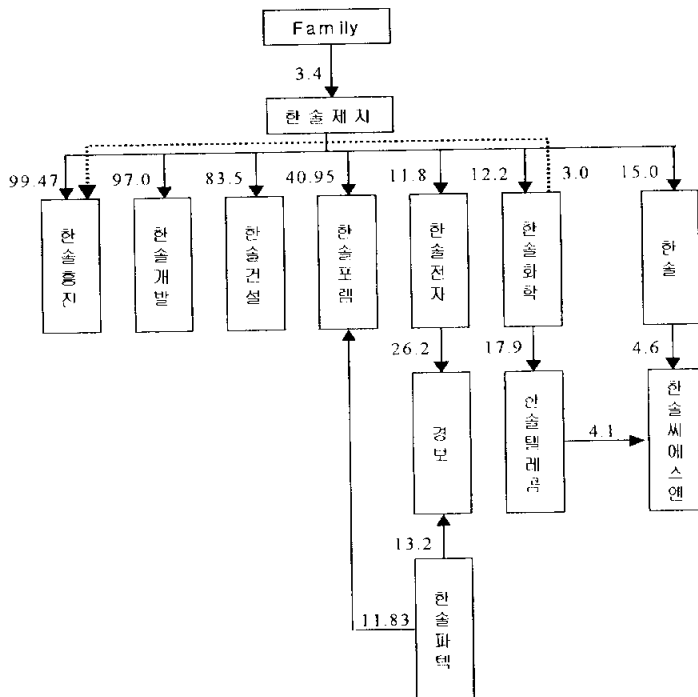
쌍용의 경우 21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석원 일가는 쌍용과 쌍용양회공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진방철강의 최대주주는 쌍용이고, 쌍용해운, 쌍용자원개발, 쌍용엔지니어링, 쌍용정보통신, 용평리조트, 쌍용정공, 쌍용건설의 최대주주는 쌍용양회공업이다. 그러나 쌍용과 쌍용양회공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각각 74.5%, 11.5%이므로 이들도 가족의 지배를 받는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진방철강 37.6%, 쌍용해운 16.5%, 쌍용자원개발 16.9%, 쌍용엔지니어링 11.5%, 쌍용정보통신 15.4%, 용평리조트 11.5%, 쌍용정공 21.7%, 쌍용건설 11.5%, 용인개발 23.0%, 유일개발 11.5%, 남광토건 11.5%

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쌍용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7. 한솔



11위 한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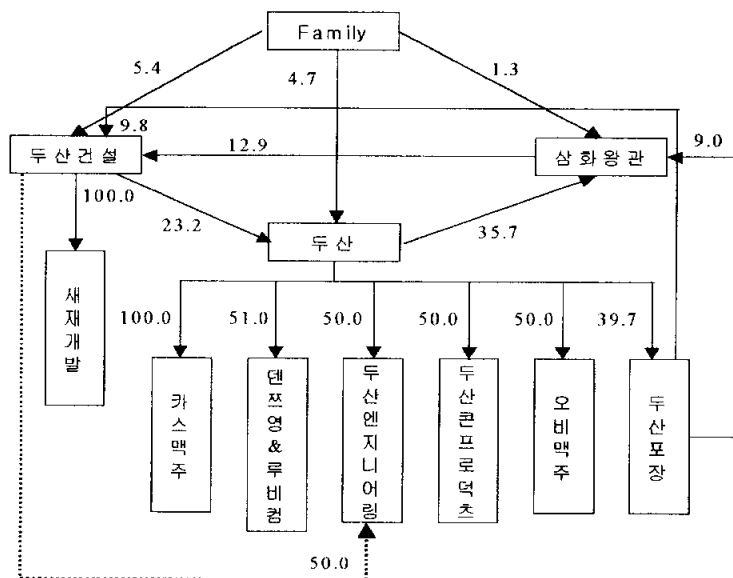
한솔의 경우 20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5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인회 일가는 한솔제지의 지분 3.4%를 소유하지만 이는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한솔제지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솔홍진, 한솔개발, 한솔건설, 한

솔포럼, 한솔전자, 한솔화학, 한솔은 한솔제지가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 이상을 소유하므로 회사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경보에 대한 한솔제지의 지분은 11.8%, 한솔텔레콤에 대해서는 12.2%이므로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한솔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1개사 중 9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8. 두산



12위 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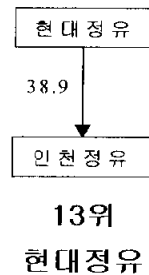
두산의 경우 17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박용곤 일가는 두산건설, 두산, 삼화왕관의 지분을 직접 소유한다. 두산이 카스맥주, 덴츠영앤드루비컴코리아, 두산엔지니어링, 두산콘프로덕츠, 오비맥주, 두산포장의 최대주주이다. 두산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10.1%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카스맥주 100.0%, 덴쓰영앤드루비컴코리아 51.0%, 두산엔지니어링 100.0%, 두산콘프로덕츠 50.0%, 오비맥주 50.0%, 두산포장 39.7%이다. 이밖에 새재개발에 대한 알기의 지분은 두산건설에 대한 지분이 16.5%이고 두산건설을 통한 새재개발에 대한 지분은 100.0%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두산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0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9. 현대정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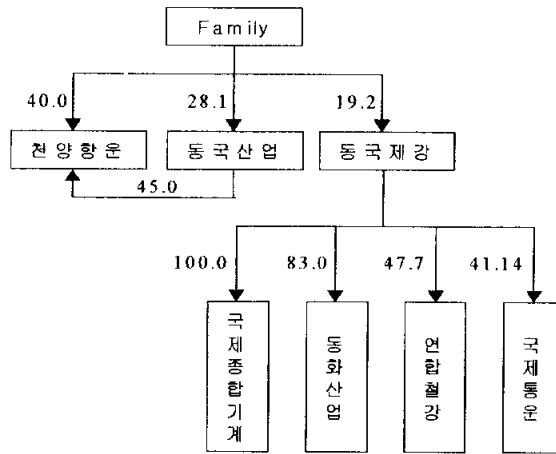


현대정유의 경우 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0개사를 제외한 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정유의 경우 인천정유의 지분을 38.9% 소유하고, 현대정유의 지분을 현대정유가 12.2% 소유한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현대정유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2개사 모두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0. 동국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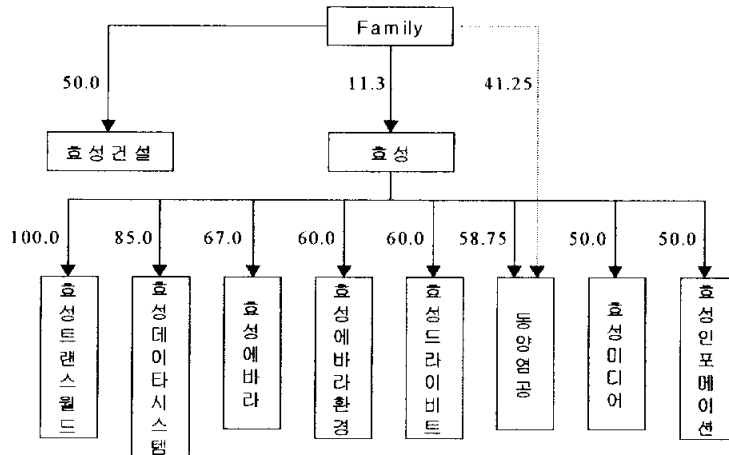
15위 동국제강

동국제강의 경우 8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개사를 제외한 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세주 일가는 천양항운, 동국산업, 동국제강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중 동국산업과 동국제강의 최대주주이다. 국제종합기계, 동화산업, 연합철강, 국제통운의 최대주주는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의 최종 소유가 일가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하였고,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모두 19.2%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국제강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7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1. 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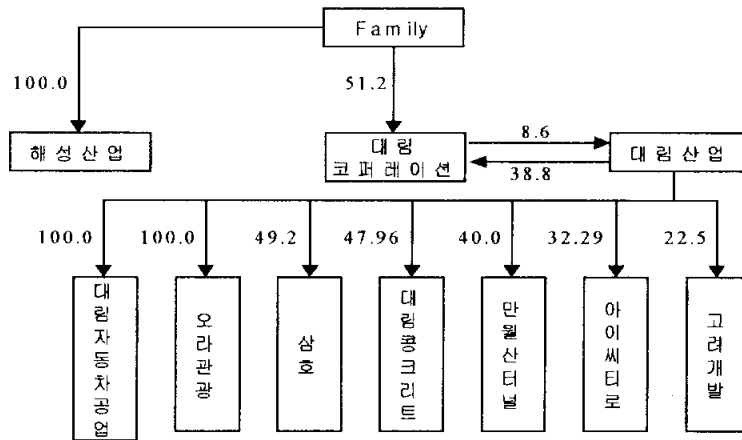
16위 효성

효성의 경우 15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정래 일가는 효성건설과 효성, 동양염공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 효성트랜스월드, 효성데이타시스템, 효성에바라, 효성에바라환경, 효성드라이비트, 동양염공, 효성미디어, 효성인포메이션의 최대주주는 효성인데, 효성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11.3%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동양염공만 52.55%이고 나머지는 11.3%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효성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0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2. 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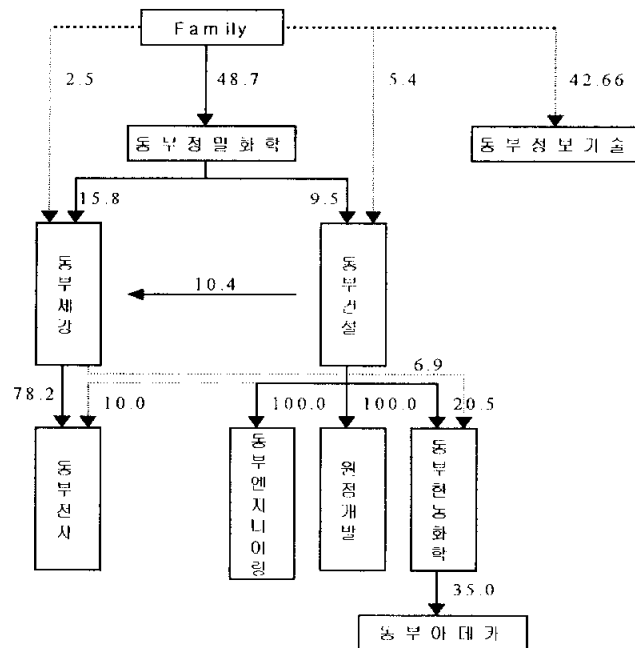
17위 대림

대림의 경우 1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4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준용 일가는 해성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대주주이다. 대림자동차, 오라관광, 삼호, 대림콘크리트, 만월산터널, 아이씨타로, 고려개발의 최대주주는 대림산업인데, 대림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8.6%이므로 이들 기업은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대림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0개사 중 2개사는 가족지배형, 8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3. 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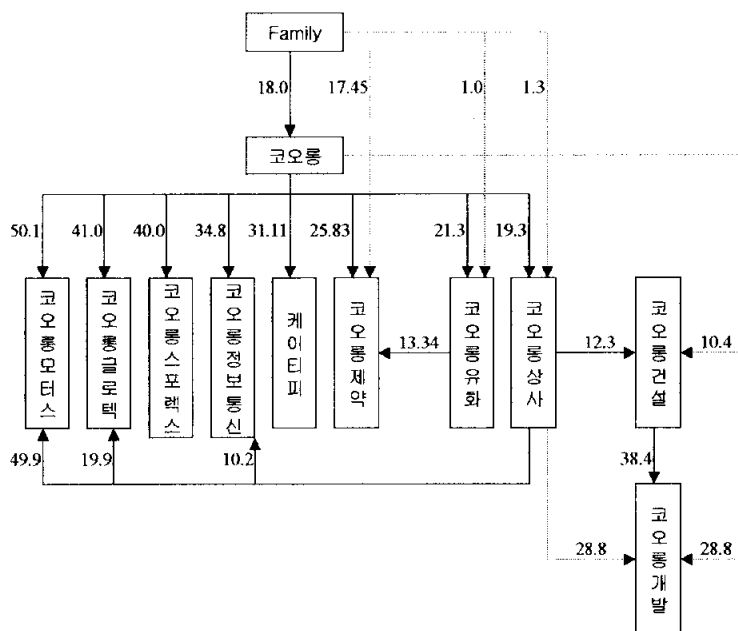
19위 동부

동부의 경우 1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6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4개사를 제외한 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준기 일가는 동부정보기술, 동부건설, 동부정밀화학, 동부제강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동부정보기술과 동부정밀화학의 최대주주이다. 동부엔지니어링, 원점개발, 동부한농화학, 동부제강의 지분을 동부건설이 소유하는데, 동부건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14.9%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이 때 일가의 지분은 동부엔지니어링 100.0%, 원점개발 100.0%, 동부한농화학 35.3%, 동부제강 28.7%이다. 동부아데카는 동부한농화학, 동부건설을 통한 일가의 지분이 35.0%, 동부전자는 동부제강, 동부건설을 통한 일가의 지분이 88.2%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부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9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4. 코오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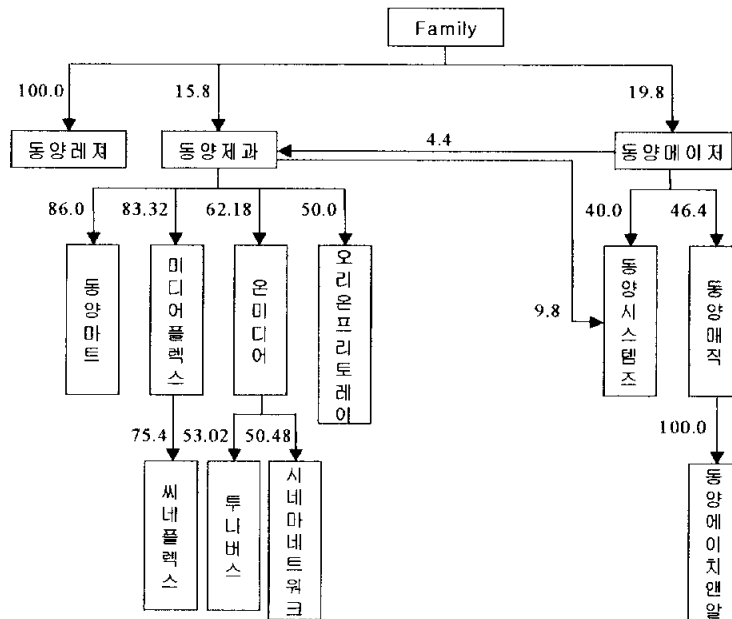
20위 코오롱

코오롱의 경우 2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2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9개사를 제외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찬 일가는 코오롱, 코오롱제약, 코오롱유휘, 코오롱상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코오롱의 최대주주이다. 일가는 코오롱을 통해 대부분의 계열기업들을 지배하는데 이때 지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오롱모터스 67.9%, 코오롱글로벌텍 37.9%, 코오롱스포렉스 18.0%, 코오롱정보통신 28.2%, 케이티피 18.0%, 코오롱제약 48.79%, 코오롱유휘 19.0%, 코오롱상사 19.3%, 코오롱건설 22.7%, 코오롱개발 48.3%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코오롱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1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5. 동양



21위 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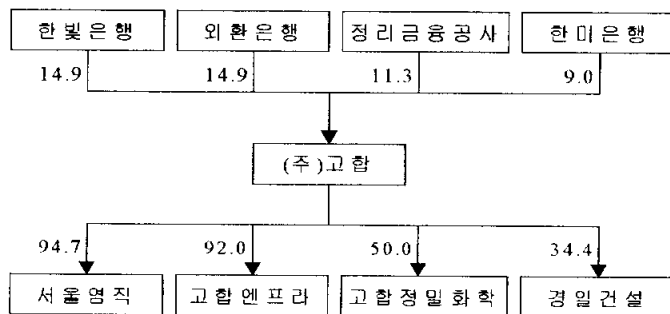
동양의 경우 2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9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7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현 일가는 동양레저, 동양제과, 동양메이저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들의 최대주주이다. 동양마트, 미디어플렉스, 온미디어, 오리온프리토레이의 최대주주는 동양제과이고, 씨네플렉스는 미디어플렉스, 투니버스와 시네마네트워크의 최대주주는 온미디어이다. 또한 동양시스템즈와 동양매직의 최대주주는 동양메이저이고, 동양에이치엔알의 최대주주는 동양매직이다. 일가는 동양제과에 대한 지분을 20.2% 소유하고, 동양메이저에 대해서는 19.8%의 지분을 소유한다. 따라서 동양제과와 동양메이저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가가 지배력을 갖는다. 각 계열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양마트, 미디어플렉스, 온미디어, 오리온프리토레이, 씨네플렉스, 투니버스, 시네마네트워크에 대해서

는 15.8%이고, 동양시스템즈 29.6%이고, 동양매직과 동양에이치엔알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19.8%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동양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6. 고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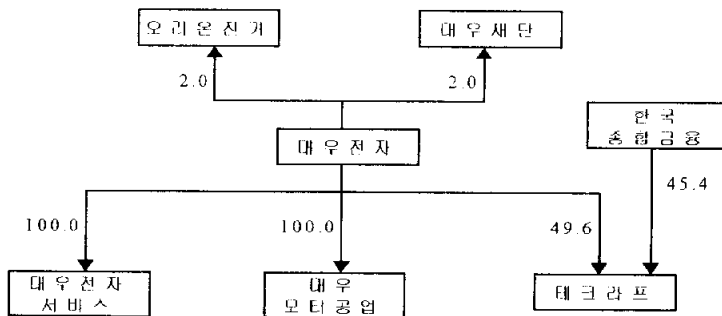
22위 고합

고합의 경우 6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0개사를 제외한 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염직과 고합엔프라, 고합정밀화학, 경일건설의 대부분의 지분을 고합이 소유하지만, 고합의 지분을 한빛은행, 외환은행, 정리금융공사, 한미은행이 각각 14.9%, 14.9%, 11.3%, 9.0% 소유하므로 최종 소유지분 기준이 10%일 경우 이들 모두 금융기관이 지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고합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5개사 모두 금융기관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7. 대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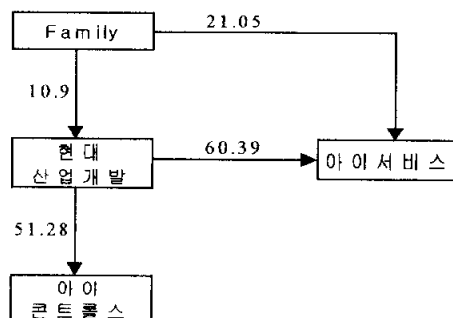
24위 대우전자

대우전자의 경우 4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0개사를 제외한 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우전자서비스와 대우모터공업, 테크라프의 최대주주는 대우전자이지만, 대우전자의 최종 소유자라고 할 만큼의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회사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대우전자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4개사 중 3개사는 회사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8. 현대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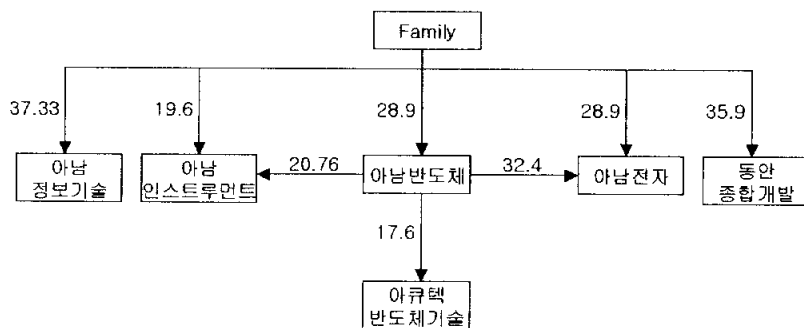
25위 현대산업

현대산업의 경우 9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5개사를 제외한 3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세영 일가는 현대산업개발과 아이서비스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최대주주이다. 현대산업개발과 아이서비스, 아이콘트롤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10.9%, 31.95%, 10.9%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현대산업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3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19. 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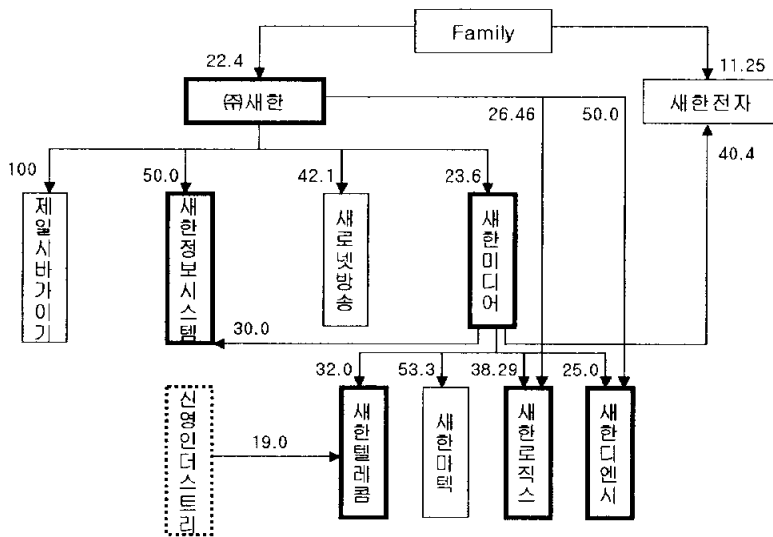
26위 아남

아남의 경우 1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6개사를 제외한 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김향수 일가는 아남정보기술, 아남인스트루먼트, 아남반도체, 아남전자, 동안종합개발에 대한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이 직접 소유한 지분만으로도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초과하므로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아남인스트루먼트와 아남전자에 대해 아남반도체를 통한 지분까지 합하면 일가의 지분은 각각 40.36%, 57.8%이고, 아남반도체를 통한 아큐텍반도체기술에 대한 지분은 17.6%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아남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6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0. 새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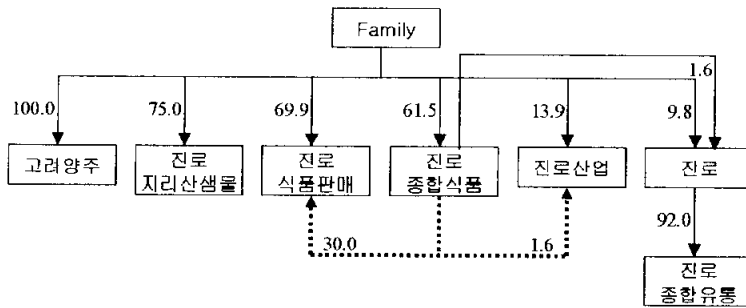
27위 새한

새한의 경우 12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0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2개사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관 일가는 새한과 새한전자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새한의 최대주주이다. 새한은 제일시바가기기, 새한정보시스템, 새로넷방송, 새한미디어의 최대주주이고, 새한텔레콤, 새한마텍, 새한로직스, 새한디엔시의 최대주주는 새한미디어이다. 새한과 새한미디어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각각 22.4%, 22.4%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다른 계열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일시바가기기 22.4%, 새한정보시스템 44.8%, 새로넷방송 22.4%이고 새한전자에 대해서는 33.65%이다. 그 외 새한텔레콤, 새한마텍, 새한로직스, 새한디엔시에 대해 22.4%의 지분을 갖는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새한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0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1.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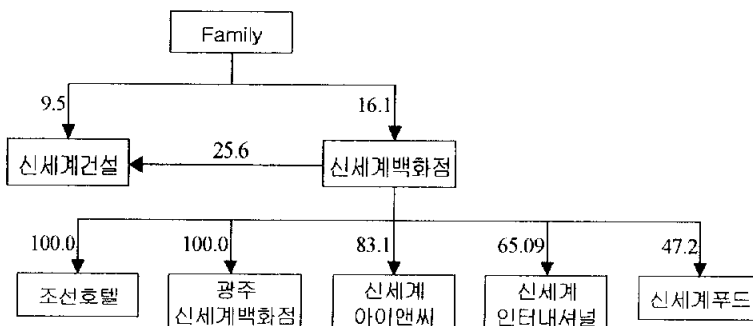
28위 진로

진로의 경우 16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8개사를 제외한 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진호 일가는 분석 대상 기업의 지분을 대부분 직접 소유하고, 직접 소유한 지분만으로 최종 소유자가 된다. 진로식품판매, 진로산업, 진로, 진로종합유통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99.9%, 15.5%, 11.4%, 11.4%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진로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7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2. 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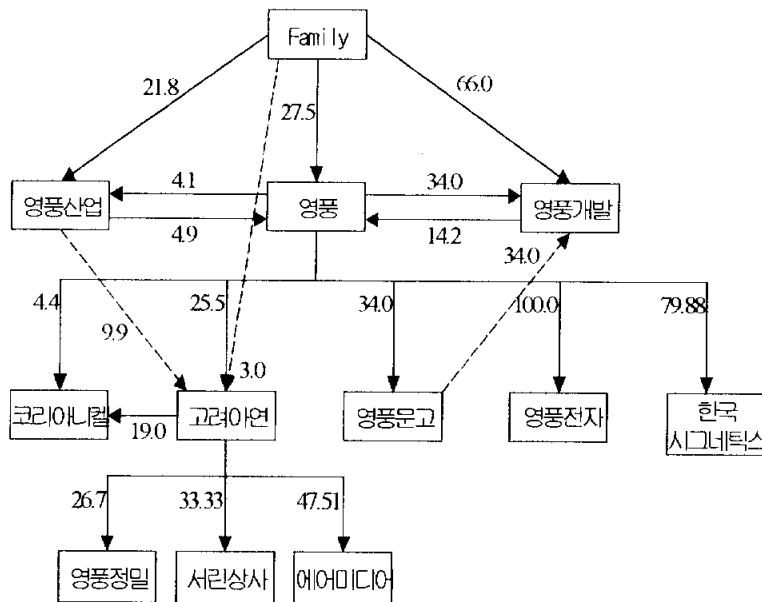
29위 신세계

신세계의 경우 11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3개사를 제외한 7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희 일가는 신세계건설, 신세계백화점의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신세계백화점의 최대주주이다. 조선폰텔,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세계아일랜드,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의 최대주주는 신세계백화점인데,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일가의 지분이 16.1%이므로 이들도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25.6%이고, 나머지 계열기업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16.1%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신세계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7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

23. 영풍



30위 영풍

영풍의 경우 24개의 소속회사 중에서 금융·보험회사 1개사와 자료수집이 어려운 12개사를 제외한 1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병희 일가는 영풍산업, 영풍, 영풍개발, 고려아연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영풍산업, 영풍, 영풍개발의 최대주주이다. 영풍산업, 영풍, 영풍개발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25.9%, 46.6%, 100.0%이다. 영풍은 코리아니켈, 고려아연, 영풍문고, 영풍전자, 한국시그네틱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각각 23.4%, 38.4%, 27.5%, 27.5%, 27.5%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정밀, 서린상사, 에어미디어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들에 대한 일가의 지분은 모두 25.5%이다.

최종 소유지분 기준인 10%를 적용할 경우 영풍그룹의 분석대상 기업 11개사 모두 가족지배형으로 분류되었다.